어머니의 찬가

인민의 찬가

만민의 찬가

1987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의 시선은 지구의 동방에 있는 조선으로 쏠리고있습니다.

지구우에 있으면서도 오랜 세월 세상에 알려져있지 않았던 조선이 세인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된것은 여기 아침해솟는 동방의 나라 조선에서 두분의 걸출한 령도자, 세계적인 절세의 위인이 출현하셨기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만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높은 칭송을 받으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십니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한평생 기울이신 로고와 그 위업에 이바지하신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우리 겨레는 물론이고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을 한몸에 모으시였습니다. 오늘 세인들이 진보적인류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을 끝없이 경모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하고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숭고한 감정의 표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고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 다시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진보적인류에게 참된 삶을 주고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해방혁명과 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등 복잡다난한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의 길로 이끄시여 우리 시대 혁명운동이 거치게 되는 모든 단계들에서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였습니다. 그분께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에 관한 가장 옳바른 전략전술적방침들, 특히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과 전반적국제혁명운동을 다그치는데 탁월한 공헌을 하시였습니다.

근로하는 인민속에서 나오시여 한평생 인민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 사랑, 모든 배려를 베푸시는것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천품으로 되고있습니다.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인 사랑은 그분의 모든 사색과 탐구의 원천을 이루고있으며 그분께서 구상하시고 세우시는 모든 로선과 정책의 초석으로 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러한 뜨거운 사랑은 현존하는 국경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나라 인민들에게도 뜨겁게 미치고있습니다.

하기에 세인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을 《인류의 태양》, 《세상에 오직 한분밖에 안계시는 걸출한 수령》,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칭송하면서 그분께 최대의 경의와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있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역시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으로 하여 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높은 칭송을 받고계십니다. 오늘 세인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자주시대의 빛나는 향도성》, 《국제혁명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빛날 태양》으로 우러르면서 그분께 높은 경의를 표시하고있습니다.

편집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영명한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칭송자료들가운데서 그 일부를 추려서 책으로 내여놓습니다.

편 집 부 1987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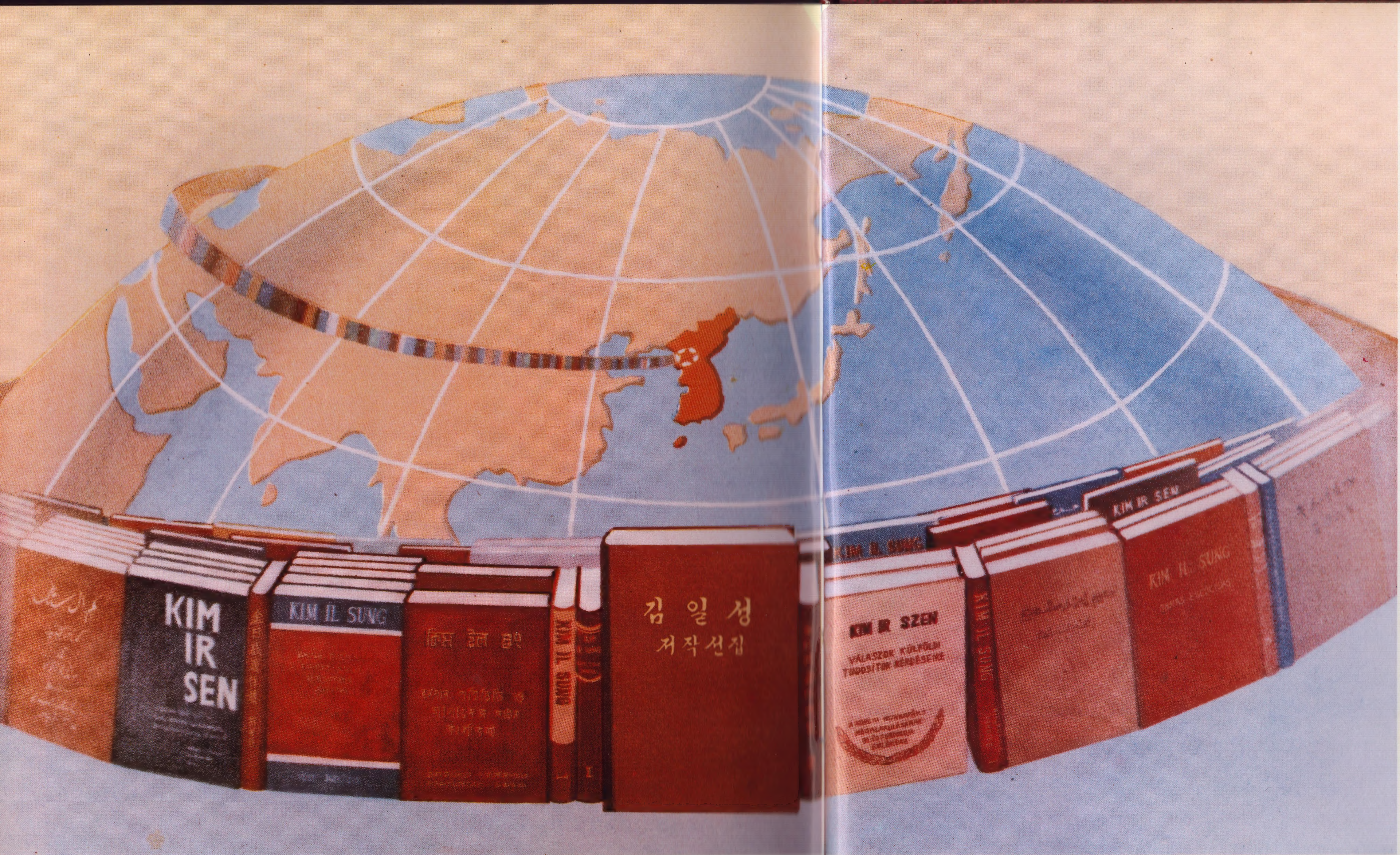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탄생(1912년 4월 15일)하신 만경대옛집을 방문하고있는 외국손님들.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인류의 태양이 솟아오른 만경대는 진보적인류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하고있다.



서재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인류의 태양》,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안계시는 걸출한 수령》, 《인류사상사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사상리론가》

—외국인들의 반향중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사상리론가로서, 혁명가로서 명성이 높으시며 그분의 로작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높이 내세우시는 그분의 가장 고상한 풍모를 찾아보게 되였습니다.》(198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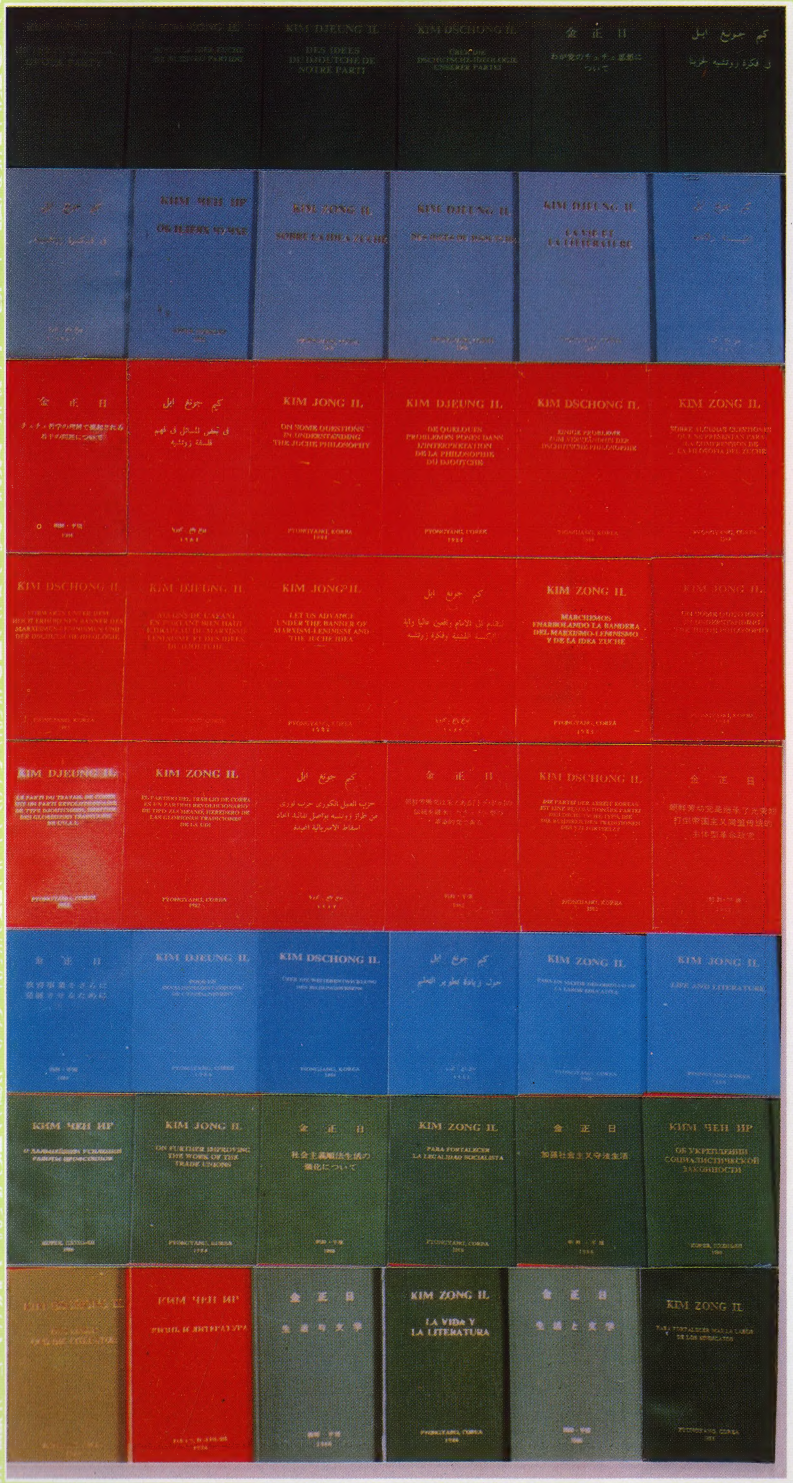
말따공화국 대통령
안톤 부티지에그

《김일성주석의 존함은 인류사상사의 가장 높은 령마루에서 우리 세기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주체〉라는 고유한 조선말로 뜨겁게 부르는 불멸의 사상을 창시하신것으로 하여 누리에 찬연히 빛나고있다.》(1974)

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엑스프레스》 사장 토마스 메냐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의 일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의 일부



사상리론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친애하는 김정일각하께서는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세련된 령도로 조선인민의 주체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향도하고계신다.

친애하는 김정일각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수많은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들을 천명하시여 인류리상사회건설의 휘황한 설계도와 비약의 대전략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김정일각하의 사상리론활동의 위대성과 독창성에 대하여 론한다면 먼저 인류의 리상사회의 면모와 그 실현을 위한 과학적방도를 뚜렷이 밝힌 각하의 빛나는 업적을 들어야 할것이다.

리상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는것은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처음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해명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관한 사상을 비롯한 일련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들을 제시하심으로써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각하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들은 오늘 조선에서 주체위업을 다그쳐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으며 새 사회 건설에서 전례없는 기적을 이룩해나가는 근본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각하는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위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계시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1982.4)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집행위원회 위원장 호쎄 프란씨스꼬 아길라르 불가렐리



창공에 높이 솟아
만방에 그 빛발 뿌리누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탑이여
너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대동강은 유유히 흘러흐르네
타오르는 봉화 번쩍이는 불빛
이보다 더 소중한것 또 어디 있으랴
태양의 심장 주체로 고동치고
그 박동소리 우주에 끝없이 메아리치네
…

빛나라 탑이여
불타라 거세찬 봉화여
온 세상 사람들 희망과 정열을 안고
주체의 빛발을 우러러보거니
거창한 이 탑에서 우리는
근로인민의 의지를 보노라
웅장한 이 탑에서 우리는
인민의 위력을 보노라
우리 함께 노래부르자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우리 함께 온 세상에 웨치자
주체조선은 가장 위대한 조국임을
오 탑이여
세기의 증견자로 영원히 남아있으라
김일성동지 그분은 가장 빛나는 태양
그분은 만민의 행복이심을 소리높이 웨치며
더욱 빛나라 위대한 주체사상이여
더욱 빛나라 탑의 찬란한 빛발이여
인류의 온갖 원쑤들을 반대하여
우리 투쟁을 멈추지 않으리니
주체사상탑
너는 근로인민이 자기 운명의 주인임을
온 세계에 밝혀준 등대
너는 가장 위대한 철학
주체사상의 영원한 상징
너는 우리에게 힘있게 선언하여라
예속된자 잃을것은 오직 철쇄라고
너는 우리에게 확신을 안겨주어라
억압받는자 얻을것은 온 세계뿐이라고

—파키스탄의 자베드 안싸리가 쓴
시 《주체사상탑에 드리는 노래》에서—



마다가스까르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과학토론회 회의장(1976. 9). 토론회에는 세계 50여개 나라의 당 및 정부대표단들과 이 나라의 국가지도자들을 비롯하여 각계의 인사 1천여명이 참가하였다.



토론하고있는 레바논 《김일성동지로작출판번역위원회》 부위원장 사미 카기

《주체사상을 그 핵으로 하는 김일성주석의 사상리론적 및 실천체계는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혁명의 필수적인 교과서이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의 사상, 리론 및 실천 체계는 혁명정부를 수립하는 방도를 비롯한 대단히 광범한 문제들을 포괄하고있으며 철학,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령역을 포괄하고있는 보편적이며 완전무결한 체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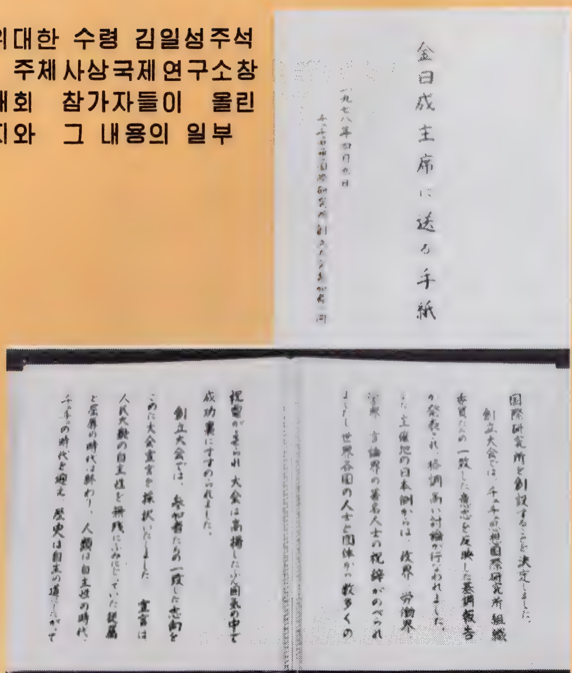
대회의 창립선언을 랑독하고있다.

《우리는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께서 반세기에 걸쳐 가장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그 진리성과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된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인 혁명사상이 가지는 과학적이며 보편적 의의를 깊이 인식하면서 이 독창적인 사상을 김일성주석동지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르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인정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적 관심과 인식이 더욱 높아가고있는 력사적환경에서 주체사상을 연구하여 구현하기 위해 우리들의 활동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들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교환하며 우리들의 공동의 사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국제적인 연구기구를 내올 필요성을 인정한다.》

—창립선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대회 참가자들이 올린 편지와 그 내용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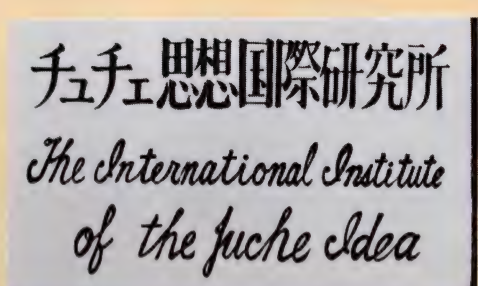
《세계의 여러 대륙에서 모여온 우리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연구하여 보급하는 영광스러운 사업을 담당한 커다란 자랑과 새로운 포부를 안고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창립을 전세계에 엄숙히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된 력사적인 날에 즈음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주석각하께 다함없는 감사와 최대의 영예를 드리는바입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대회 참가자일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올린 편지에서—



일본에서 진행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대회 회의장(1978. 4)



일본 도꾜에 있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간판

1978년 4월 일본 도꾜에서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조직위원회 성원들과 일본에 있는 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들 그리고 이 나라의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비롯하여 800여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 연설한 대표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위대성에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면서 세계적범위에서 주체사상을 널리 연구보급해야 할 필요성과 그를 위해 나서는 과업들을 명확히 밝히고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드리는 편지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선언이 채택되였다.



인도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참가자들. 세계 70여개의 나라와 4개의 국제기구들에서 85개의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인도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주석단(1979. 4)

《진정으로 김일성주석은 동방이 낳은 위대하고 현명한분이시라는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태양은 동방에서 솟아 전세계를 비쳐주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도 동방에서 솟아올라 전세계의 각곳에서 어둠을 몰아내고있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은 맑스-레닌주의사상발전의 최고봉을 이룬다. 그분은 탁월한 사상가이시며 리론가이시다. 주체사상은 자기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민족들에게 앞길을 환히 밝혀준다.》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종합대학 부총장이며 교수인 박사 티. 비. 무케르지가 한 토론에서—

《주체사상은 자주성에 대한 인류의 세기적숙원을 그들의 과학적신념으로 전환시킨 사상이며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불멸의 사상이다.

인민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정당성을 확신하고있으며 이러한 믿음은 날을 따라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발전할수록 더욱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 차장 오가미 겐이찌가 한 토론에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존엄있고 값있는 생활을 누리려는 인류의 념원을 실현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태양이시다.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존함은 인류의 미래와 더불어 영생할것이며 인류사회의 발전과 함께 영원히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다.》

—요르단공보부 정치고문 겸 정책연구조사국장 무스타파 아이자베르가 한 토론에서—

《김일성주석은 혁명의 천재이시다.

그분께서는 바로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이 지녀야 할 령도예술을 정연하게 완성하시고 혁명을 령도하시는데서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령도예술은 과학적인 사상인 주체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있으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에서 거대한 변혁을 이룩케 하는 불멸의 힘으로 되고있다.》

—마다가스까르혁명리사회 성원 쟝밥띠쓰뜨 라마쓰 짤라마가 한 토론에서—







말따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구라파 및 지중해 지역토론회 회의장(1980. 4)



시에라레온에서 진행된 전아프리카 김일성동지 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 회의장(1972. 12)





레바논에서 진행된 중근동지역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주체사상연구토론회 회의장(1971. 12)

1971년 12월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에서는 세계적인 범위의 첫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있었다.

이 국제토론회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시대리념으로 삼고 그것을 적극 따라배우려는 인류의 높은 열망에 기초하여 마련된것으로서 주체사상을 널리 파급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빠나마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 과학토론회 회의장(1980. 4)



나이제리아에서 진행된 《주체사상과 현대 나이제리아 발전》에 관한 전국토론회 회의장(1985. 2)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제1차토론회 회의장(1979. 7)



일본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과학토론전국집회 회의장(1974. 10)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주체사상과 조선의 통일문제에 관한 전국토론회 회의장(1982. 4)



가이아나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전국토론회 회의장(1978. 9)



프랑스에서 진행된 주체철학에 관한 토론회 회의장(1984. 2)



말리에 있는 6개의 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과 그분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칭송하는 강연회를 가지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발표 1주년 기념 전국연구토론집회가 일본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세계 5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그분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광범히 진행되고있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로작들은 그 사상리론의 독창성과 심오성,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세인들속에서 더욱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세계적판도에서 광범히 연구보급되고있다.

로작들에 대한 연구토론회는 최근년간에만도 80여개 나라에서 1,200여회나 진행되였다.

아세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에서는 해마다 로작발표기념일을 계기로 연구토론회가 진행되였으며 아프리카와 구라파, 라틴아메리카의 주체사상연구 지역조직들에서도 로작들에 담겨진 위대한 혁명학설을 체득하기 위한 토론회들이 거듭 진행되였다. 또한 인도, 탄자니아, 가나, 짐바브웨, 단마르크, 스웨리예,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로작들에 대한 전국 및 련합 토론회가 사회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되였다.

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대한 연구토론회는 로작이 발표된후 지난 4년 남짓한 기간에 70여개 나라에서 600여회에 걸쳐 진행되였고 로작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에 대한 연구토론회는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남짓한 기간에 60여개 나라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교육기관들에서 100여회에 걸쳐 진행되였다.

토론회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로작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백과전서》, 《자주시대의 념원을 실현해나가는 길을 밝혀준 휘황한 등대》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또한 로작들은 사상리론의 위대성과 독창성, 내용의 풍부성과 다방면성, 비상한 설득력을 가진 철의 론리와 통속적인 문풍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다고 강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신문에 전재하고있는 말따공화국의 출판일군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그분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세계 여러 나라 출판물자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그분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세계 여러 나라 출판물자료

《주체사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현시기 세계의 혁명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때문에 오늘 진보적 인사들과 과학자들이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을 조직하고 출판활동을 적극 벌리면서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집행위원회 위원장 호쎄 프란씨스꼬 아길라르 불가렐리



공화국의 도서 및 사진전시회장을 찾은 애급 까히라의 시민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에 수록된 명제를 수첩에 적고있다.



공화국의 도서 및 사진전시회장을 찾은 요르단의 한 국가일군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명제를 읽으며 거기에 담겨져있는 심원한 사상에 대하여 해설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기본요구와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판도에서 날을 따라 수억만 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다.》

파키스탄자주연구쎈터 책임자 자파르 로드위



잠비아조선친선도서관 관장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잠비아의 간부들과 인민들 속에서 널리 애독되고있는데 대하여 설명하고있다.



책방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로작들과 그분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도서들을 구입하고있는 노르웨이의 주민들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지지를 받고있다. 그것은 주체사상이 자주성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고무해주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사상은 해방을 이룩하며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에서 근본적인 기초로 된다.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주체사상연구를 위한 조직들이 결성되였다. 그리하여 불멸의 주체사상은 급속히 보급되였다.》

르완다공화국 초등 및 중등교육부장 알로이스 은쎄깔리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인류의 휘황한 미래를 밝혀주는 력사의 등대이며 모든 신흥세력인민들의 새 사회, 새생활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필승의 무기이다.…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중심의 철학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으로 하여, 세계를 놀래운 거창한 실천투쟁으로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신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세계에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특출하고 위대한분으로 되시였으며 그분의 존함은 전진하는 력사와 더불어 찬연히 빛나고있다.》

가나신문 《가나타임스》 책임주필 크리스티안 아그리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운명의 길 삶의 길 열어준
태양을 우러러
생활의 신조 투쟁의 진리를 안겨준
태양을 우러러
억만의 심장이 하나로 고동치고
억만의 대오가 한길로 굽이치는 이 시대

불타는 사막에선
그 빛발 생명수가 되어
마르고 타는 가슴 적셔주어라
창공을 덮은 밀림속
침침한 쟝글에선
그 빛발 길잡이되여
하늘을 안겨주고
넓은 길 열어주어라

위대한 주체사상은 새 시대의 빛발
자본의 철쇄는 어떻게 마스고
노예의 멍에에선 어떻게 벗어나며
자주의 새생활은 어떻게 꽃피워야 하는가를
누리에 찬란히 밝혀주는
투쟁의 기치 승리의 등대

오 만민은 노래하노라
새 력사의 려명 동트게 하시고
모든것 사람위해 바치는
사람중심의 새세상을 펼쳐주신
위대한 주체의 태양
김일성주석을 우러러
만수무강 축원의 노래 부르노라

씬다 후쎄인 씬다(탄자니아)





애급에 있는 한 주체사상연구소조에 망라된 소조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토론모임을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학습에 열중하고있는 탄자니아의 인민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있는 자이르의 주체사상신봉자들





잠비아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에 열중하고있다.

가없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사람처럼
머나먼 이곳에서 뵙고싶은 간절한 소원 안고
존귀하신 당신의 영상을 우러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당신은 만민의 존경을 받으시는분
당신의 품은 자애로운 사랑의 품
당신의 나라는 인민들이 행복을 누리는 락
원의 요람

당신께서 내놓으신 문헌들은
아프리카의 앞길을 밝혀줍니다
당신께서 밝히신 사상과 리론은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철추가 되고
인민들에게는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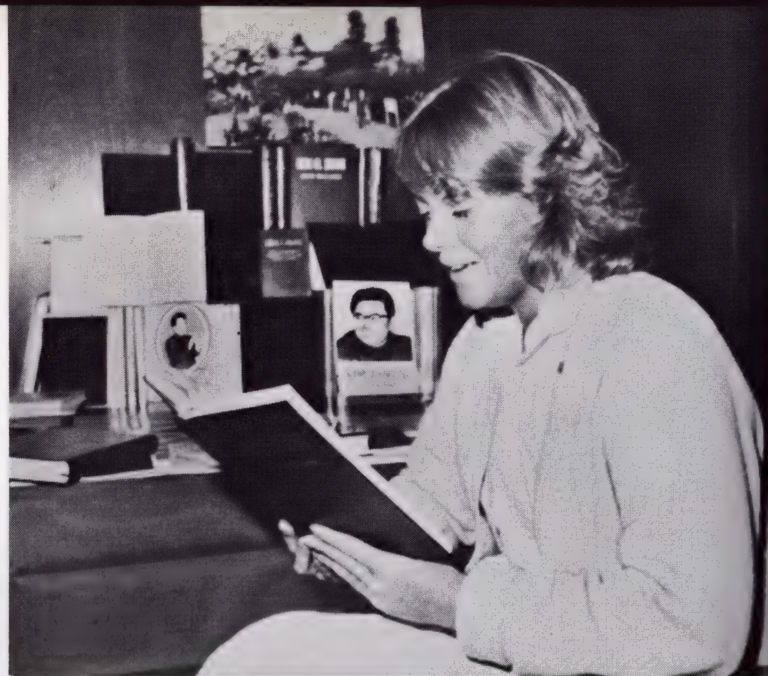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새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가듯
내 수정같이 맑은 마음과 아름다운 꿈을
안고
당신의 품속으로 달려갑니다

수만갈래 아롱진 빛발안고 당신께
영광의 노래 축복의 노래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당신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탄자니아의 사무엘 이리라가 쓴 시
《탁월한 지도자》에서—



밤이 깊도록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학습에 열중하고있는 스웨리예의 한 녀성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학습을 체계적으로 하고있는 짐바브웨의 청년들



또고에 있는 어느 한 도서관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들을 많이 구입하여 독자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해주고있다.



《김정일각하의 사상리론활동은 결코 고요한 서재에서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창조적투쟁이 벌어지는 벅찬 현실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이것은 그분의 사상과 리론이 실천과의 밀접한 통일을 이루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다.

그분께서 걷고걸으신 수천수만리의 현지지도의 길은 인민들을 창조와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는 탁월한 령도의 길인 동시에 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 위한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로 이어진 사상리론활동의 길이기도 하다.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리론들은 이처럼 어느것이나 다 실천속에서 나오고 실천에 의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것으로 하여 대중에게 인차 파악되고 그들의 심장을 그처럼 억세게 틀어잡는것이며 또 대중에게 파악되자 곧 위대한 기적을 낳는것이다.》

방글라데슈자주연구학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삼술 알람

인류의 영웅들이신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

빛나는 두 태양 높이 솟았네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
그분들은
누리에 밝은 빛 뿌려주시네

눈부신 그 빛발아래
인류는 나아가네
확신과 신념에 넘쳐 나아가네

인류를 향도하는 두 태양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
그분들은 빛나는 예지로 찬란한 빛발로
자주의 길 밝혀주시네

새 힘과 용기 희망에 넘쳐 나아갈
공산주의지름길로
온 세상 인민들을 령도하시네

주체의 두 태양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
빛과 사랑의 크나큰 그 품은
주체조국의 슬기를 키워주고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네

찬란한 그 빛발
국경을 넘고넘어
인민을 따사로이 비쳐주거늘
온 세계 인민들의 행복의 날은
반드시 오리라

누리에 빛나는 두 태양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
그분들은 세계혁명의 위대한 지도자
그분들을 세계인민들은 심장으로 우러르네
두분의 영광을 목청껏 높이높이 노래부르네
영광과 축원을 드리네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 만만세!

싼띠아고 에레라 베니떼스



주체사상탑을 참관한 세계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칭송하고있다.

《비범한 령도력과 완성된 령도예술을 겸비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 정통하고계시는 만능의 령도자》

—외국인들의 반향중에서—



평양시건설전망을 토의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인민대학습당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학습당의 전망대에 오르시여 평양시건설전망을 살펴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1982. 4)

《오늘 조선은 세계정치의 중심으로 되고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 특히 3세계나라들이 조선의 생동한 현실을 통하여 현시대의 추세로 되고있는 자주성을 어떻게 이룩하며 어떻게 자주권을 행사하고 고수해나가는가 하는것을 배우고있다.

오늘의 조선은 강대한 미일 두 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치고 피의 대가로 찾은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고수하고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전반적면모를 일신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한평생을 오직 인민을 위하여 바쳐오시였으며 이 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투쟁업적으로 하여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로부터 〈20세기의 영웅〉으로 칭송받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 지역위원회 서기장 힐베르또 싸빠따 이싸사

《오늘 조선에서 전변의 새 력사를 안아오는 령도의 거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함께 주석의 혁명위업을 높이 받드시고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이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령도예술과 령도방법을 완벽하게 체득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매일 매 시각 위대한 비약과 기적을 이룩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마다가스까르신문 《판드리암빠하레마나》 편집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을 모시고 준공된 평양산원을 돌아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1980. 3)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조선은 천리마의 조선, 매일 기적이 일어나고있는 나라로, 사회주의새생활이 약동하는 락원으로, 자유와 정의가 무엇인가를 실생활을 통하여 보여주는 나라로 되였다. 로동이 곧 기쁨으로, 영예로 되는 나라,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이 실시되며 공업과 농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이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 특히 현지지도로 세상에 알려진 그분의 탁월한 령도방법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사실상 지금까지 세계의 다른 어느 한 국가수반도 그렇게 혁명과 건설을 지도하지 못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작은 일로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례를 들어 탁아소로부터 대학과 공장의 사업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현지지도를 통하여 이끌어주시며 거기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수 있고 온 나라에 일반화할수 있는 훌륭한 전형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하는것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들에서 걸리고있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다.

김일성주석의 현지지도는 매우 독창적인것이다.》

꽁고통신사 기자 오끄끄—얌바 피르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방법을 그대로 본받으시여 이르는곳마다에서 인민들과 담화도 하시며 그들의 의견도 들어주시고 의논도 하시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 사업에 불러일으키고계신다.

오늘 조선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와 함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에 대한 가지가지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멀리 북단 우암리에서 남쪽 분계선초소에 이르기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나라의 모든 지역을 현지에서 지도하신다.

그분께서는 도시와 농촌, 공장과 어촌, 유치원으로부터 각급 학교에 이르기까지, 휴양소와 병원, 극장에 이르는 모든 지역, 모든 단위들에 대한 현지지도를 주실뿐아니라 지어 두메산골의 벌목공들에게까지 찾아가시여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계신다.

이와 같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중령도리론을 구현하는데서 모든 일군들에게 실천적모범을 보여주고계신다.》

아세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소장, 박사 티. 비. 무케르지



서해갑문 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새로 만든 농기계의 성능에 대하여 말씀올리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우리는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로 수놓아진 조선을 방문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주체사상이 가장 빛나게 구현되고있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다.

가난하고 뒤떨어졌던 조선은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모든 사람들이 래일에 대한 그 어떤 근심걱정도 없이 행복하게 사는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다.

조선은 오늘 정치적자주성과 경제적자립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제3세계나라들의 산 모범으로 되고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류학생들의 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 아이띠사람 앙드리스 리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또도르 쥡꼬브와 함께 2.8비날론공장을 돌아보시였다.(1973. 10)

《탁월한 혁명리론과 비상한 조직적수완, 불굴의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간고하고 험난한 조선혁명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빛나게 이끌어오시였다.

바로 김일성주석의 천재적인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조선인민은 온갖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가시덤불길을 헤쳐나감으로써 발전된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설수 있게 되였으며 조선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민족의 대번영을 이룩할수 있었다.》

알제리 석유탐사회사 기사 하제라스 하미드





식량 및 농업 증산에 관한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토론회에 참가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 농업부장들과의 협의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1981. 8)

《우리는 김일성주석의 위대하고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식량 및 농업 생산을 높이는데서 급속한 전진을 이룩하였다는것을 알고있다.

지난 20년동안에 알곡생산이 약 2.4배 늘어났다는것은 의심할바없이 놀라운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농업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바 과거에는 정보당 수확고가 벼는 2~3톤, 강냉이는 1.5~2톤이였던것이 현재 벼는 7.2톤, 강냉이는 6.3톤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훌륭한 성과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이 구현된 결과에 이룩된 결실이라고 본다.》

국제관개 및 배수위원회 부서기 에쓰. 디. 엘. 루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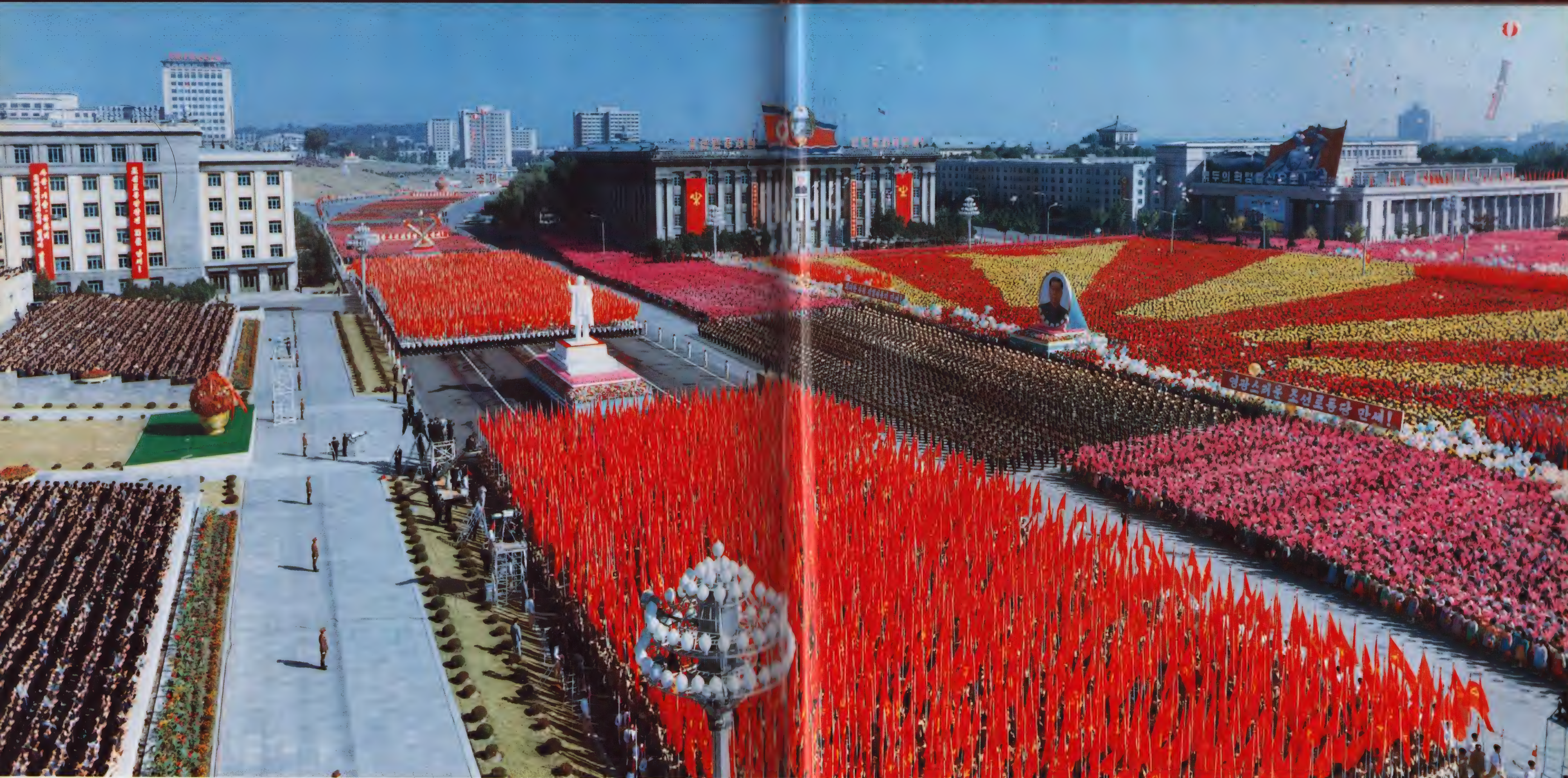
1981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는 식량 및 농업 증산에 관한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81개 나라와 14개 국제기구에서 온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식량 및 농업 증산을 위한 투쟁행정에서 이 나라들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고 이 분야에서 나라들사이의 호상협조를 강화하여 집단적인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토론회의 마지막날인 31일에 평양토론회에 참가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 농업부장들을 만나시고 협의회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협의회에서 우리 나라 농업발전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소개하시고 제3세계나라들의 농업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농업과학연구기지창설문제, 농업기술인재양성문제, 관개수리건설문제 등 아프리카나라들의 농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일련의 대책적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통일단결된 불패의 위력을 보여주는 100만 평양시민들의 군중시위의 한 장면(1980. 10)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와 당창건 35돐을 경축하는 100만 평양시민들의 군중시위를 보고 스위스자주사회주의당 정치국 위원 크래엔뷜 마르꼬는 《이 시위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통일단결의 시위이며 근로대중을 하나의 지향에로 이끌어주는 시위입니다. 이러한 통일단결은 원자탄보다 몇만배나 더 강한 위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시위는 평화적시위이지만 그 어떤 무력시위보다 더 위력합니다. 이 힘을 꺾을자는 세상에 없을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와 당창건 35돐을 경축하는 100만 평양시민들의 군중시위를 보고 끼쁘로스사회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피피스 이완노우는 《시위를 통하여 조선인민의 단결된 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통일단결은 보통의 통일단결이 아니라 특출한 통일단결입니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조국해방 40돐을 경축하는 홰불행진대오를 본 쏘련대외친선문화련락협회련맹 상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예브게니 이와노브는 《대단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선인민이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얼마나 굳게 뭉쳐있는가를 온 세상에 시위하는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조선로동당의 표식(마치와 낫, 붓)과 《일심단결》이라는 글발을 새기고 나아가는 장엄한 홰불행진대오(1985. 8. 15)



공원속의 도시 평양

평양시를 참관하고있는 외국손님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지도밑에 건설된 쌍탑형식의 평양고려려관을 중심으로 한 창광거리의 일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이 나라에서는 수많은 기적적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실례로 보통 10년은 걸려야 할 창광거리의 현대적이며 웅대한 다층주택건설이 그분의 지도밑에 1년도 안되는 사이에 완성되였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웅장한 규모의 인민대학습당의 건설이 짧은 시일내에 완공되게 된것도 역시 비범한 예지를 지니고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스리랑카 전 국회의원, 조선의 통일을 위한 스리랑카 전국위원회 부위원장 자야 파티라나



락원의 도시 평양시 천리마거리의 야경

《평양은 공원속에 있는 도시였다. 모란봉공원, 대성산유원지, 보통강유원지 등등 공원과 유원지들이 많다. 고층건물이 들어서있으나 그곁에는 반드시 아동공원이 있고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인구 1인당 록지면적은 48평방메터로서 1인당 록지면적이 0점이하의 평방메터로 되는 일본의 큰 도시들에 비하면 실로 록지천국이라고 말할수 있다.》

일본 《교또신붕》사 론설위원 호리에 아끼라

《평양은 분수의 도시, 음악의 도시이며 하나의 화원이다. 우리는 수십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 분수를 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참말로 진기하게 조화를 이루고있는 분수들은 시원하고 상쾌한 감을 주었다. 더우기 밤의 평양은 가로등과 건물들, 기념비들 그리고 분수들에 설치된 장식등으로 하여 마치도 불꽃속에 잠겨있는것 같았다.》

말따신문 《오리존트》 부주필 루이스 까우끼

《친애하는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로 평양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만수대의사당, 인민대학습당 그리고 넓다란 길량옆에 하늘을 찌를듯 줄지어 높이 솟은 수십층의 살림집들, 그야말로 모든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어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왔다.》

마다가스까르혁명전위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민족인민회의 부의장
안드리아마누히쑤아 라나이보 넬쏜 빅또르

《력사에 특정한분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지도밑에 조선에서는 최근년간에 만수대예술극장, 평양산원, 창광원, 락원거리, 평양지하철도, 대성산유원지, 인민대학습당, 빙상관들이 일떠섰다.

그분께서는 또한 20층, 30층짜리 주택들이 들어앉은 현대적인 창광거리 건설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그분의 현명한 지도로 이 건설은 10개월에 끝낼수 있었다.》

기네—비싸우 사회보험전국위원회 과장 까를로스 떼이쎄이라 바르보싸



평양에서 열린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현대문학의 역할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대표단 성원들은 평양시를 돌아보고 평양이 현대적인 도시로, 인민의 락원으로 훌륭히 건설된데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꾸바공화국 무역부장과 그 일행은 번영하는 평양의 모습을 부감하면서 평양시가 웅장화려하게 건설된데 대하여 감탄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는 위대한 력사와 찬란한 현실을 낳았다.

조선에 도착한 첫순간부터 나의 가슴을 한없이 높뛰게 한 평양의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김일성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수도의 풍치를 돋구며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인민대학습당과 만수대예술극장,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현대적건물들, 20층, 30층의 현대적인 새 주택들이 숲을 이룬 세계1등급의 창광거리와 비파거리의 드넓은 거리들, 새로 건설되는 문수거리와 동평양지구의 대통로들, 실로 도시의 풍경은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의 극치라고밖에는 달리는 말할수 없었다.》

가나신문 《가나타임스》 책임주필
크리스티안 아그리



인민대학습당(건평 약 10만평방메터, 장서능력 3천만권, 하루 평균 수용능력 1만 2,000여명). 인민대학습당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위한 기지이며 통신종합대학이다.

《인민대학습당이 너무도 훌륭하고 황홀하여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민대학습당은 모든 인민들이 다 와서 마음껏 공부하는 학습의 대전당이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중심기지입니다.

인민대학습당은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건설의 집대성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조선인민의 당과 정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입니다.

인민대학습당의 건축술이 훌륭하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카나다공산당 총비서 윌리암 카슈탄

《조선방문기간 실지 참관을 통하여 알수 있었지만 조선에서 최근 시기에 일떠선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구상하시고 설계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지도해주시였으며 그 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해 주신것들이였다.》

가나신문 《가나타임스》 책임주필
크리스티안 아그리



쏘련녀성위원회대표단 성원들이 인민대학습당을 참관하면서 학습당이 훌륭히 꾸려진데 대하여 감탄을 표시하였다.



에꽈도르 중앙종합대학대표단 성원들이 인민대학습당을 참관하면서 학습당이 현대적으로 잘 꾸려진데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나는 인민대학습당과 같은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타이는 말할것도 없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도 이런것이 없습니다. 오직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인민대학습당은 조선의 자랑입니다. 인민대학습당 하나만 보아도 조선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알수 있을뿐아니라 경제력을 알수 있습니다.》

타이 타마싸르종합대학 총장고문 카위 탐수부트라

《나는 난생처음 이러한 대학습기지를 보았습니다. 도꾜에 있는 국회도서관은 인민대학습당에 대비도 안됩니다. 인민대학습당은 오직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학습의 종합쎈터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인민대학습당을 돌아보면서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가 참으로 우월하다는것을 직접 알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수도중심을 보면 대체로 권력기관이 자리잡고있는데 오직 조선의 수도인 평양의 중심에는 인민을 위한 학습당이 자리잡고있습니다.

이 한가지 사실을 놓고보아도 김일성주석의 넓으신 도량과 덕망을 알수 있습니다.

김일성주석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 머리를 숙입니다.》

일본 세이죠대학 교수 야마하라

《오늘 제일 인상깊고 무게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인민대학습당은 말그대로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대학입니다. 쏘련에는 인민대학습당과 같은 종합적인 학습궁전이 없습니다.

책도 마음대로 볼수 있고 강의도 받을수 있고 외국어를 몰라도 번역테프를 가지고 학습할수 있고 강의에 참가 못해도 록음과 록화를 통해 강의를 받을수 있고 음악강의도 받을수 있으니 세상에 이런 학습당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세상에 대고 자랑할수 있습니다. 정말 별세계에 온것만 같습니다.》

쏘련 심장연구소 소장, 원사, 박사,
교수 이고리 꼰스딴 찌노비츠

《50년대초에 나는 조선전쟁소식들과 평양시에 떨어진 폭탄수에 대하여 들었다. 그때 사람들은 이 도시가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가장 세밀한 기하학적이며 우중충한 건물들이 늘어선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를 보고있다.

이것은 건설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수단 작가 및 시인동맹 위원장
무함마드 알리 아부 가타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건설된 평양지하철도의 지하역(건설역)

《조선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평양지하철도가 훌륭하다고 하기에 이번에 와보니 참으로 훌륭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하철도입니다. 모든것이 다 조화롭게 장식되고 인민들의 리용에 편리하게 건설되였습니다. 완성된 지하철도입니다. 세계에는 이런 지하철도가 없습니다.》

프랑스 기자 삐에르 라고르스

《평양지하철도는 하나의 예술작품전시관과 같습니다. 저는 평양지하철도가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처럼 훌륭할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보석과 같이 귀중한 지하철도입니다. 이 지하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지하철도가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적인 지하철도입니다.》(1982. 2)

상부볼따공화국 총리 또마 쌍가라



뽈스까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의 책임보좌관일행이 평양지하철도를 돌아보면서 《지하궁전》이라고 감탄해마지않았다.



타이 치앙과이종합대학대표단 성원들이 평양지하철도를 참관하면서 지하철도가 훌륭히 건설된데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지하의 락원이라고 할수 있는 평양지하철도도 참관하였다.

그것은 가장 현대적인 지하철도이다. 지하철도역은 번영하는 조선사회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벽화들과 꽃무늬들로 장식되여있었다.

훌륭한 지하철도를 보고 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경제정책의 정당성과 그분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적조선인민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잘 알수 있었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스승이신 **김일성**주석을 수령으로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고있기때문에 짧은 기간에 그런 지하철도를 건설해놓을수 있었다.》

방글라데슈자주연구학회 바리살지역
위원회 위원장, 교수 루훌 아민

《대단히 훌륭한 지하철도를 보았습니다. 지하철도라기보다 귀중한 하나의 교양장소로 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인민들을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데 중요하게 리용될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입니다.》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문화부
부부장 쥐브까 버츠꼬바

《강한 인상을 받은 다른 하나의 실례로서 평양지하철도를 들수 있다.

아마 세계최상급의 지하철도일것이다. 교통을 〈문화〉로 보고있는데 대해서는 크게 배워야 할것이다. 지하철도는 문화적일뿐아니라 조선인민의 투쟁력사를 역마다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는데 그것은 20세기 최상의 지하철도문화이며 지하미술전시관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일본 오끼나와현 요미다니촌 촌장
야마구찌 도꾸노부

《우리는 오늘 평양지하철도참관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모든것이 다 조화롭게 장식되고 인민들의 리용에 편리하게 건설되였습니다. 완성된 지하철도입니다. 세계에는 이런 지하철도가 없습니다. 제일입니다.》

마다가스까르민주주의공화국주체사상
연구위원회 안따나나리부 지부책임자
라자모엘 리나 라라하리 나이보



준공된 서해갑문을 참관한 외국손님들은 서해갑문은 세계적인 창조물이라고 하면서 커다란 감탄을 표시하였다.

《서해갑문은 세계적인 창조물입니다. 조선인민이 이처럼 웅장하고 거창한 갑문을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과 기술, 자재로 건설한것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이러한 갑문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와 친애하는 김정일비서의 정력적인 지도의 결과입니다.》

일본사회당소속 중의원 의원, 조선문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훅가이도본부 집행위원장 야스이 요시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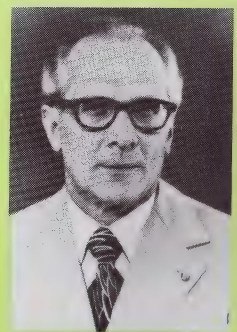
《우리 프랑스에는 〈불가능한것이란 프랑스사람들에게 없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으나 이것은 점차 적게 쓰이군한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돌아본 나는 〈조선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것이란 있을수 없다.〉라고 단언한다.

나자신을 비롯하여 많은 외국사람들이 조선에 대하여 가장 높이 평가하는것은 바로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함으로써 조선에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판단과 자체의 힘, 대중의 창발성에 의거하고 자기 나라의 력사적 조건과 특성을 깊이 고려하여 풀어나가는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제도를 수립할수 있게 되였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프랑스 자유기자 장 바레



20리날바다우에 솟아난 서해갑문의 갑실과 수문들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독일민주주의 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에리히 호네케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세기적인 건축물로 당당한 자랑을 떨치고있는 서해갑문 참관을 통하여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방대한 건축물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서 훌륭한 성과를 달성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근로자들의 창조력과 풍부한 사상의 발현이다.

또한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적이며 인민의 복리를 위한 정책과 위대한 사회주의힘의 잠재력에 대한 뚜렷한 표시이다.》



베닌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베닌인민공화국 대통령, 국가수반, 전국집행리사회 위원장 마티어 께레꾸

《서해갑문은 경탄을 자아내는 웅대한 창조물이다.

자연을 정복하는데서 이룩한 놀라운 성과를 보고 베닌인민혁명당 및 혁명적국가대표단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지도를 받는 조선인민이 사회와 자연의 주인으로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벌려 완전한 자주성을 실현해나가고있다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

서해갑문 건설장을 찾은 외국손님들. 그들은 서해갑문의 건설은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을 증시해준다고 하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서해갑문 건설장을 돌아본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은 보기 드문 대단한 공사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칠성못가에서 바라본 평안남도 안주군소재지에 건설된 남흥청년화학종합공장 로동자아빠트들





함경북도 남청진에 건설된 김책제철소 로동자아빠트들



순천세멘트공장 중앙조종실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늘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찬란한 업적을 과시하는 영원한 상징으로 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금없는 나라, 석탄과 강철을 자급자족하는 나라, 자랑스러운 생산장성수자를 가진 나라, 짧은 기간에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대하여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는 나라, 누구에게나 무료의무교육과 무상치료를 실시하는 나라로 되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였으며 사회주의나라를 일떠세우시고 공산주의의 튼튼한 토대를 쌓아올리시였다. 참으로 그분은 인류력사에서 보기 드문 위대한분이시다.》

네팔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비슈누 순다르 쁘라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대표단 성원들이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참관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제1가공종합직장에서 대형발전기의 축을 가공하고있다.

《공장이 웅장하고 설비들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공장참관을 통하여 조선인민이 얼마나 재능있고 힘있는 인민인가를 더 잘 알게 되였으며 앞으로 조선이 더욱더 부강하고 발전된 나라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탄자니아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 전국집행위원회 통제 및 규률위원회 비서인 파울 쏘지과

《나는 강력한 사회주의공업토대를 축성하는데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룩한 중요한 성과의 상징으로 되는 현대적인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 대한 방문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이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한 평화, 안전과 사회주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결정을 관철하는데서 발휘하고있는 조선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에리히 호네케르



2·8비날론공장을 참관한 부룬디공화국 정부대표단 성원들이 주체공업의 위력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류의 리상사회이다. 조선의 현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싶던 그 절절한 소원이 이루어져 주체의 나라, 조선을 방문하게 된것은 나의 가장 큰 행복이며 더없는 영광이였다. 조선에 머무르는 기간은 나에게 있어서 보는것, 듣는것, 모든것이 새롭고 신기하였던 감격의 나날이였다.》

가나신문 《가나타임스》 책임주필 크리스티안 아그리



중국 상해시친선대표단 성원들이 2·8비날론공장을 돌아보고나서 비날론공업은 주체공업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감탄해마지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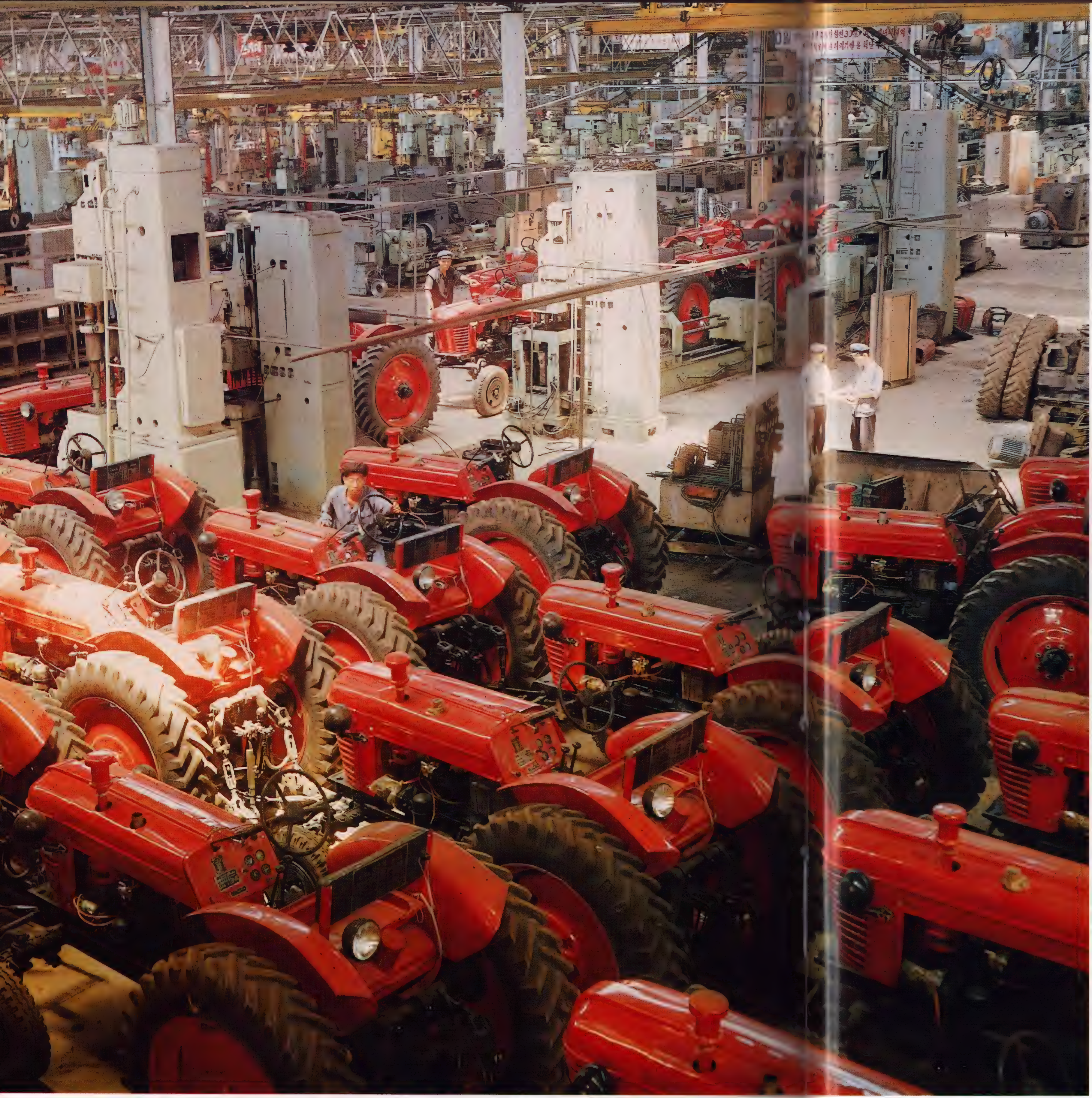
2.8비날론공장의 방사직장

《우리가 참관한 2.8비날론공장은 주체공업의 본보기라고 말할수 있다. 기계, 기술, 원료 등 모든것이 자기 나라의것이였다. …여러 나라의 공장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자력갱생하는 공장은 처음보았다.》

가이아나주체사상연구쎈터 서기장 패트릭크 앨린

《조선인민이 존경하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 나라의 원료와 설비, 자기의 기술로 질좋은 비날론솜을 생산하는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곳 로동계급이 앞으로 비날론솜 생산에서 계속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쏘련공민 야. 떼. 노비첸꼬



현대적인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 조립직장의 일부

《금성뜨락또르공장에는 수입기계가 없다. 뜨락또르생산에 필요한 모든 기계들은 다 국내의 여러곳에 있는 공장들에서 만든것들이다. 모든 기계에 다 국내상표가 정확히 붙어있었다.》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 위원회 서기장 훌베르또 싸빠따 이싸사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을 참관한 아일랜드로동당대표단 성원들

《해방직후 자그마한 농기구공장에 지나지 않았던 금성뜨락또르공장은 농촌기계화를 위한 뜨락또르생산을 국내에서 할데 대한 김일성주석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짧은 기간에 자동화되고 현대적설비를 자랑하는 대규모공장으로 발전하였다.》

일본 《자주의 회》 성원 야규 요시끼



뻬루아메리카인민혁명동맹대표단 성원들이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을 참관하였다.

《대규모의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은 가장 현대적인 공장이다. 한해에 수만대의 뜨락또르를 생산하고있다. 전후시기 보잘것없던 이 공장에서 첫 뜨락또르는 35일만에 생산되였다.》

네팔 주간지 《뉴 라이트》 주필 고팔 구룽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기계공업대표단 성원들이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을 돌아보았다.



벼수확기의 동음이 그대로 풍년가되여 울려퍼지는듯…(청산협동농장에서)

《주체사상이 구현된 리상적인 농장인 청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날로 번영하고있는 본보기농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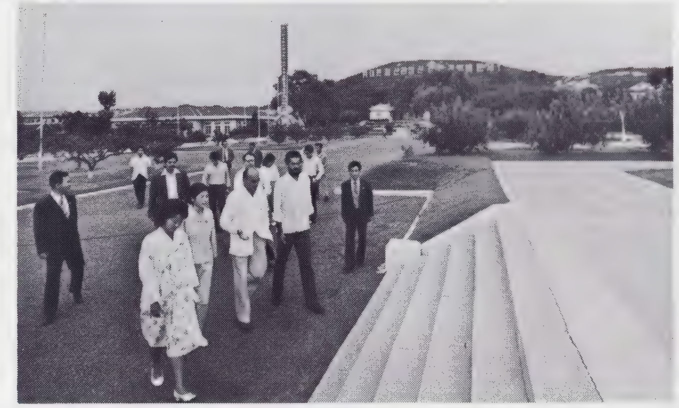
조선통일지지영국위원회 서기장 그렌빌 브이. 스톤

《우리는 청산협동농장을 찾았다. 이 농장은 매우 이름높은 농장이다.

이 농장의 녀성관리위원장은 우리와 함께 농장을 돌아보면서 농장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 그는 씨뿌리기, 김매기, 낟알털기 등 모든 일이 다 기계화되여 농민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되였으며 거기에서 나온 많은 로력이 축산업과 잠업에 돌려지고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산뜻하게 꾸려진 살림집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갔다. 그 집에는 두칸의 살림방과 부엌, 목욕탕이 있었는데 모두 알뜰히 거두어져있었다.》

인도 러크노우종합대학 문학교수, 박사 우샤 굽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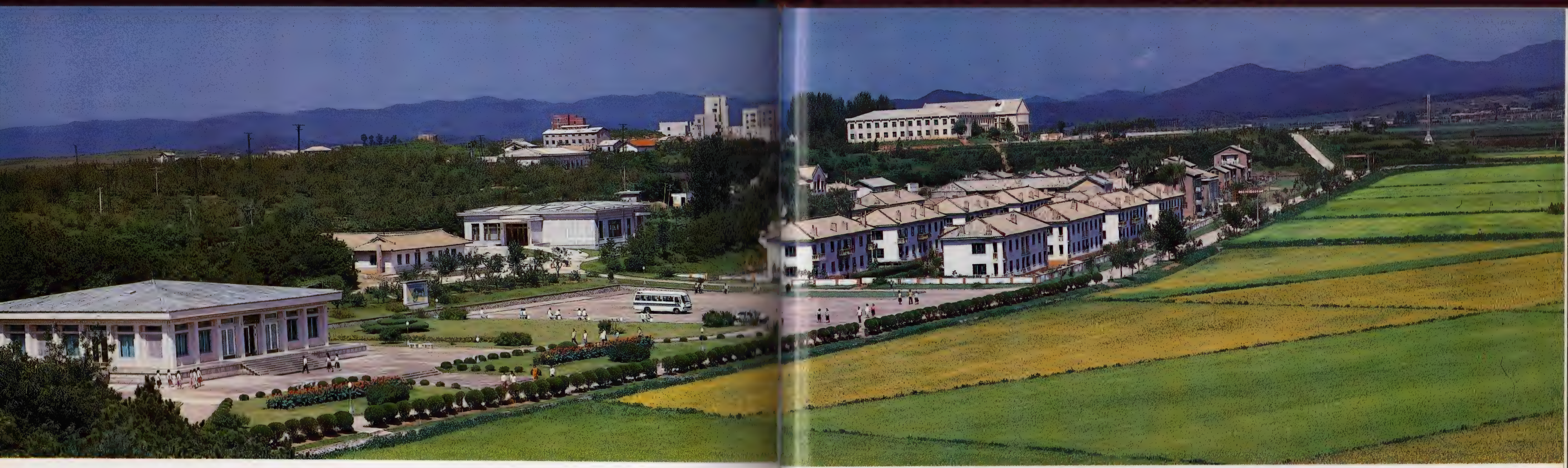
공화국을 방문한 전 메히꼬대통령일행이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참관하면서 농장이 잘 꾸려진데 대해 몹시 감탄해하였다.



청산협동농장을 참관한 꾸바공화국 외교부장 일행은 청산리가 살기 좋은 문화농촌으로 전변된데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청산협동농장의 농기계들을 돌아본 단마르크왕국 국회대표단 성원들은 농촌경리의 기계화수준이 높은데 대하여 감탄해마지않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전화의 날에 들리시여 농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① 인도공산당(맑스주의)대표단 성원들이 원화협동농장의 농기계들을 돌아보면서 기계화수준이 높은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② 프랑스국회 하원에 조직되여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제연구그루빠》대표단 성원들이 원화협동농장의 논벌을 돌아보면서 포전정리가 잘되고 작황이 좋은데 대해 감탄해마지않았다.

③ 공화국을 방문한 우간다대통령일행의 일부 성원들이 원화협동농장 농민들의 주택지구를 돌아보면서 농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은데 대해 부러움을 표시하였다.



원화협동농장에 새로 건설된 다층문화주택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지도밑에 건설된 평안남도 문덕군 동림마을의 일부



유엔개발계획대표단 단장 람나라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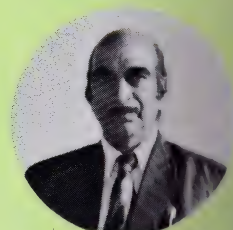
《나는 2·8저수지를 돌아보고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이러한 저수지들은 농업생산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깊은 인상을 받은것은 농촌경리의 수리화가 완성되여 그 어떤 왕가물에도 끄떡없이 매해 높은 수확을 내고있는것이다.

나는 농업부문에 대한 국제토론회뿐아니라 여러 부문의 국제회의들을 앞으로 조선에서 많이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농업, 공업 등 모든 분야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성과는 뿔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되기때문이다.

이러한 성과는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조선에서만 찾아 볼수 있는것이다.》



국제관개 및 배수위원회 부서기
에쓰. 디. 엘. 루트라

《세계에는 기계화되고 발전된 나라들도 많지만 조선과 같이 기계화수준이 높은 나라는 적다.

위대한 주체농법이 구현되고있는 조선농촌에서는 자체로 만든 뜨락또르를 비롯한 많은 선진농기계가 농민들의 일손을 대신하여 전야작업을 하고있다. 농민들은 기계의 도움으로 일은 헐하고 흥겹게 하면서도 많은 소출을 내고있다.

김일성주석의 위대하고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식량 및 농업 생산에서 급속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지난 20년동안에 알곡생산이 약 2·4배 늘어났다는것은 의심할바 없이 놀라운 일이다.》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농업부장
죠세프 제이. 문가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식량과 농업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여기에서 기초로 되고있는것은 바로 자립적인 민족경제이다.

조선에서는 굳건히 다져진 자립적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식량증산과 농업발전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들과 화학비료 등을 다량 생산공급하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는 조선에서 농업발전의 급속한 전진을 떠밀어주는 강력한 추동력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한다.》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 위원,
계획부장 겸 농업부장 마리오 그라싸 마숭고

《조선은 농업문제, 식량문제 해결에서 세계적모범으로 되는 나라이다. 조선인민은 전후에 모든것이 페허로 된 빈터우에서 농촌건설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짧은 기간에 오늘과 같은 훌륭한 농촌을 일떠세웠다.

조선의 농촌은 가장 발전된 물질기술적장비를 가진 현대적인 농촌으로 전변되였으며 식량이 부족하던 궁한 처지를 영원한 과거사로 만들고 식량을 자급자족하며 수출까지 하고있다.

조선에서 이룩된 이 놀라운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주체농법을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현명하게 령도하셨기때문이다.》



유치원에서 학교교육의 기초를 쌓고 인민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배움의 꽃대문으로 들어서고있다.(평양시 평천구역 봉남인민학교에서)

《조선의 교육제도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주체적인 사회주의교육사상에 기초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된데 이어 1958년에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1967년부터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였다. 그리고 1972년부터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을 주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였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완전히 실시됨으로써 조선의 모든 새세대들은 로동할 나이가 될 때까지 높은 수준의 중등교육을 받고있다.》

방글라데슈 치따공종합대학 경영학부장, 교수, 박사 모함마드 마이눌 이슬람



유치원 높은반(학교전의무교육 1년)에서 실물교육을 받고있는 어린이들(평양시 중구역 서창유치원에서)



교과서를 받아안는 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이 가득…(평양시 대동강구역 릉라인민학교에서)



자유독일청년동맹대표단 성원들이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면서 궁전이 훌륭히 꾸려진데 대해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뻬루아메리카인민혁명동맹대표단 성원들이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면서 궁전이 현대적으로 잘 꾸려진데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한 에꽈도르중앙종합대학 대표단 성원들은 훌륭하게 꾸려진 궁전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누리는 어린이들을 보고 몹시 부러워하였다.



평양학생소년궁전(연 건평 5만평방메터)

《우리는 장대재마루에 자리잡고있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찾았다. 귀여운 소녀들이 달려나와 붉은넥타이를 매주었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흔들고 조선말과 영어로 〈환영〉이라고 웨치면서 우리를 뜨겁게 맞이하였다.

궁전의 한 책임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후대들의 교육사업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1963년 9월 30일 이 궁전을 세워주시였습니다. 이때로 말하면 나라가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라 간고분투하던 때입니다.〉라고 허두를 떼며 궁전의 자랑찬 력사와 그 운영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었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은 학생소년들의 과외활동의 기지이다.》

가이아나인민민족대회당 위원장, 부대통령인 비. 캐미 람사루프의 정치고문 디. 에이. 싱

《조선에서는 어린이들이 〈왕〉이며 〈왕〉이 활동하는 시설을 〈궁전〉이라고 부르고있다. 어린이들이 방과후 과외활동을 하는 장소로서 학생소년궁전이 있다. 학생소년궁전이 여러개 있는데 그중에서도 평양학생소년궁전이 규모와 설비 등 모든 면에서 첫 자리를 차지한다. 이 궁전은 1 1만평방메터의 부지에 5만평방메터의 건평을 가진 13층짜리 건물이다. 안에는 1, 100석을 가진 극장과 천문대, 체육관, 도서관 등 200여개의 각종 연구실과 활동실이 있다. 궁전에서는 지도교원들이 과외활동을 지도하여주고있는데 어린이들은 취미에 맞는 소조에 망라되여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고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제1차 대표단성원 데루야 간도꾸



주체교육의 전당 김일성종합대학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선의 교육기관들을 돌아보았다.

먼저 평양의 자랑의 하나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았다. 1만명을 훨씬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는 이 대학에는 10여개의 학부와 수십개의 강좌 그리고 수많은 연구실과 실험실들이 있다. 또한 대학에는 조선어와 영어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 말로 된 약 200만권의 장서를 갖추고있는 도서관이 있다.… 대학에는 또한 출판사와 인쇄공장, 농장, 식당과 상점, 병원 등이 있다.

대학의 그 훌륭한 시설들과 설비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인도 러크노우종합대학 문학교수, 박사 우샤 굽따

《조선의 교육제도에 대하여 말할 때 잊지 말아야 할것은 학교교육이 완전히 무료이라는 것이다.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으로 될 때에만 진정한 의의를 가질수 있다.

조선에서 학교교육은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 대학생들에 대하여 완전히 무료이다.

후대교육에 깊은 배려와 사랑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발기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1959년부터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전반적무료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기때문에 조선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자기들이 교육을 받는 비용을 전혀 물지 않는다. 그리고 전문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은 국가로부터 장학금까지 받고있다. 조선에서는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형태의 교육도 완전히 무료이다. 여러가지 형태의 사회교육, 간부들의 재교육, 성인교육도 국가의 비용으로 실시된다.》

르완다공화국 초등 및 중등교육부장 알로이스 은쎄깔리제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의 서경. 이 음악무용서사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고있다.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 공연을 관람하면서 우선 작품의 구성이 매우 대중적이고 현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처음부터 화려한 평양의 모습이 출연자들과 함께 나타나기때문에 국적이 다른 외국사람들이나 늙은이、젊은이 등 모든 사람들이 쉽게 리해할수 있고 무대에 끌리우게 되는것이다.

둘째로 인상적인것은 작품이 민족적색채가 농후하고 인민대중이 주인공으로 형상되여있다는 점이다.

표현형식은 철저히 민족적형식으로 일관되여있다. 무용으로부터 음악、시、미술、장치、의상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명백하고 주체적으로 형상되여있는데 그것은 부러울만한것이였다.

셋째로 매우 예술적이고 교육적인 작품이라는것이다.

공연을 관람하는 과정에 자기 나라의 력사를 배우게 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간직하게 되며 휘황한 조국을 건설하는데 떨쳐나설 용기와 힘을 받아안게 된다. 특히 흐름식으로 움직이는 립체무대미술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것이라고 생각한다.

넷째로 공연이 조선인민에게 특히 깊은 감명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간난신고를 헤쳐온 사람들의 끝없는 기쁨이 커다란 감동으로 폭발하여 박수의 물결이 온 장내를 뒤흔들고있었다.

다섯째로 전성기를 맞이한 조선의 예술이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조선이 일대 문예부흥기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일본 사다마쯔하마다 바레단 책임자 사다마쯔 도오루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혁명영화 《조선의 별》(제8부)의 한 장면



예술영화 《위대한 품》의 한장면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각색한 혁명가극 《피바다》의 한 장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문학예술발전에서도 최대의 칭송을 받으셔야 할 탁월한 기여를 하시였다.

그분께서는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당의 참된 딸〉과 같은 혁명가극들과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 등 명작들의 창작을 세심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이 혁명가극들의 일부는 빠리, 로마, 스톡홀름, 런던, 도꾜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공연되여 관중들로부터 〈주체예술의 최고봉〉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다방면적인 재능을 지니고계신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스리랑카 전 국회의원, 조선의 통일을 위한 스리랑카전국위원회 부위원장 쟈야 파티라나



평양시내 5만명 학생소년들이 출연하는 집단체조 《빛나는 조선》의 종장

《나는 조선에 머무르는 기간 수만명의 청년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를 관람하였다. 셀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학생들의 정확한 동작과 배경대에 새겨지는 황홀한 그림들을 보는것은 체육축전을 보는것과 같았다. 제아무리 천재적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여도 이 집단체조에 대하여 글로 다 묘사하지는 못할것이다. 사실 이 집단체조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설명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뜌니지신문 《알 바얀》 주필 나쥐브 알 쿠윌디

집단체조 《빛나는 조선》을 관람하고있는 외국손님들은 대단히 훌륭한 집단체조라고 하면서 연방 감탄해마지않았다.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한 항일투사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조각군상(만수대언덕)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한 쏘련 해상선박대성대표단 성원들이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조각군상(만수대언덕)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15성상 백두산을 넘나드시면서 전개하신 항일무장투쟁은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으로 가득찬 간고한 투쟁이였다. 그분의 령도가 없었더라면 항일무장투쟁을 전진시킬수도 그 대오를 보존할수도 없었을것이며 승리를 이룩할수도 없었을것이다. 위대한 주석께서는 인민의 무진장한 잠재력을 거대한 혁명력량으로 전변시키여 일제를 타승하시고 마침내 나라를 구원하시였다.

인류는 일찌기 〈지옥〉과 〈천국〉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냈다.

주석께서 이룩하신 업적은 폭군이 살판치는 〈지옥〉에서 모대기던 인민을 구원하여 자주적인 생활을 약속해주는 새 〈천국〉으로 이끌어준것과 같은 영원히 빛날 업적으로 된다.》

영국에 있는 인도작가, 박사 라그비르 단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고있는 일본 나가노현대표단 성원들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고있는 아랍사회부흥당대표단 성원들



삼지연대로천혁명박물관을 참관하고있는 스리랑카정부대표단 성원들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후 제국주의자들은 극도로 당황하여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말살하려고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또다시 조국보위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그분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을 지니시고 전쟁의 매 단계에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창조하시고 적용하시여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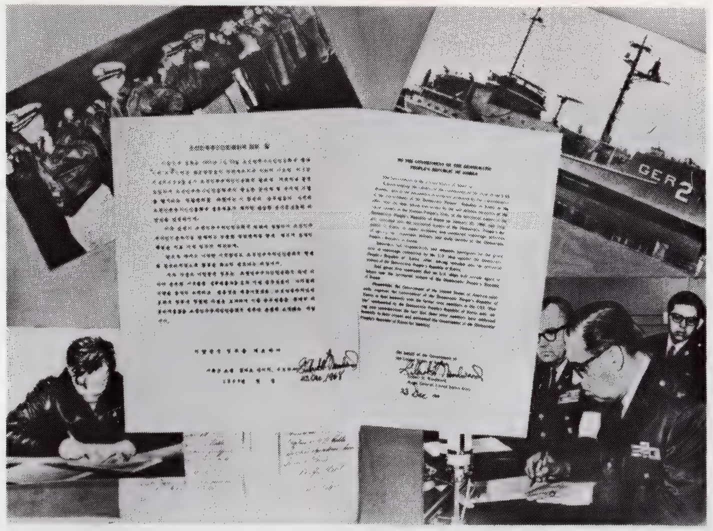
그분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하시고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려버리는 공적을 쌓아올리시였다.》

네팔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김일성주석의 로작출판편집부》 주필 마니크 랄 슈레스타

《항일무장투쟁의 실천적경험은 억압받던 인민들은 오직 손에 무장을 들고 하나로 뭉쳐 옳바른 령도밑에 싸울 때에만 권리를 찾을수 있으며 압제자들과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오늘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생명수로 되고있다.

조선의 참다운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진행하신 그분의 초기혁명활동과 조국해방을 위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였으며 이것은 오늘 혁명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 서기장 힐베르또 싸빠따 이싸사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선원들의 정탐행위와 관련하여 사죄한 사죄문과 선원들에 관한 합성자료

공화국령해에 불법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나포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선원들



《1968년 가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근 80여명의 외국기자들의 참가밑에 〈푸에블로〉호 선원들과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기에서 선원들은 모두가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자기들의 죄행을 인정하였다.

미제는 이 〈푸에블로〉호사건으로 하여 또다시 세계의 량심앞에 자기의 파렴치한 몰골을 드러내놓을수밖에 없었다.

또한 〈푸에블로〉호와 그 선원들이 나포됨으로써 미국정부와 태평양사령부는 심각한 위기를 겪었으며 세계에서 평화와 자유를 가로막으려는 국제적인 범죄자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다시 승리를 기록하시였다. 그러나 미제는 자기의 침략일지에 또다시 쓰거운 패전을 기록하였을것이다.》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 서기장 힐베르또 싸빠따 이싸사

《**김일성**주석은 조선에서 일제를 격멸하시고 미제를 소탕하신 위대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그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하다는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심으로써 비록 작은 나라 인민일지라도 자기의 정의로운 위업을 위해 무장을 들고 단결하여 일떠설 때 그 어떤 침략자나 원쑤도 쳐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수 있다는 불멸의 진리를 온 세계에 해불처럼 밝혀주신 위대한분이시다.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였다는 사실은 무장투쟁력사에 기록된 유일한 실례로 될것이다.》

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엑스쁘레스》 사장 토마스 메냐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고있는 적도기네공화국 군사대표단 성원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고있는 아프가니스탄인민민주당대표단 성원들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숭고한 덕성과 고결한 인품을 지니신 걸출한 수령》

—외국인들의 반향중에서—



평양시 창광거리에 건설된 살림집부엌을 돌아 보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함흥시 룡성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로동자들과 담화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1959. 3)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근로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로부터 신심과 용기를 얻으시였으며 그들의 생활을 자애로운 어버이심정으로 돌보시고 그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그분께서는 때로는 쇠물을 뽑는 용해공들과 함께, 때로는 들판에서 김매는 농민들과 함께 계시면서 기름묻은 로동자의 손과 흙묻은 농민의 손을 잡아주시였으며 그들과 무릎을 같이하시고 나라일을 의논하시면서 그들의 가정일까지 물으시며 그들의 생활을 돌보아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오직 인민의 가장 탁월한 수령만이 체현할수 있는 고매한 덕성, 인민을 한없이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고매한 성품과 끝없이 고결한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적의리를 지니고계시는 한없이 자애롭고 너그러우시며 겸손하고 소박하신 인민의 인자한 어버이이시다.》

인도사람 제이. 씨바람

《**김일성**주석께서는 언제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인테리 등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을 배워주시고 그들속에서 인민들의 지향과 나라의 현실을 깊이 파악하신다는것을 나는 잘 알고있다.

지난해 나는 우리 〈다오엑스프레스〉에 **김일성**주석께서 농민들과 함께 멍석자리에 앉으시여 자애로운 미소를 담으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현명한 수령, 열렬한 인민, 현실적인 길〉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에 대한 글을 소개한적이 있다. 그것을 본 우리 다오메(1975년에 나라이름을 베닌으로 고침—편집자주)사람들은 매우 신기하게 여기며 감탄해마지않았다.

그처럼 위대하신분이 어떻게 그런 멍석자리에 앉으시여 농민들과 스스럼없이 담화를 하실수 있는가 하는것이였다.

나는 **김일성**주석께서 기나긴 혁명과 건설의 길에서 이렇게 언제나 공장과 농촌, 인민들이 일하며 사는 모든곳에 찾아가시여 기쁨과 행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신다는것을 이야기해주었고 글로써도 널리 선전하였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든 조선인민들이 한결같이 〈위대한 어버이수령님〉이라 부르며 높이 존경하며 따르는 **김일성**주석! 바로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투쟁하는 여기에 조선인민의 가장 큰 기쁨이 있고 무궁무진한 창조력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엑스프레스》사장 토마스 메냐싼

《김일성주석처럼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나라와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그들과 의논하기도 하시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신다. 하여 그분께서는 근로대중속에서 높은 권위와 신망을 지니고계시며 그들속에 계시는것을 가장 즐거워하신다. 이것은 인민에 대한 그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그대로 보여준다.》

프랑스 자유기자 쟝 삐에르 브릴레

《김일성주석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가 인민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민의 념원이며 소원이 담겨진것으로 하여 매우 감동적이였고 귀중한것이였다.

누구에게나 쉽게 리해되도록 하시는 말씀이였지만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나는 어찌하여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그처럼 흠모하고 만나뵙고싶어하며 그분을 만나뵙고서는 자기들의 새로운 탄생에 대하여 긍지높이 이야기하는가를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였다.

인민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새힘과 용기를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이시기에 사람들은 응당하게도 그분을 인류의 태양이시라고 칭송하는것이 아닌가.》

시에라레온기자협회 사회담당비서, 《싼디플라쉬》신문사 책임주필 데이쉬 보나 알렌



평안남도 강서군(오늘의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리농민들과 농사일을 의논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1958. 10)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대단히 친절하시고 인자하시며 소박하시고 겸손한 품성을 지니신 매우 소탈하신분이시다.
이러한 품성은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수 없고 오직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서만이 지니고계시는 품성인것이다.
김일성주석의 자애로운 품성은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겼다.
우리들은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을 만나보았지만 김일성주석과 같이 위대한 혁명사상을 지니고계시며 그처럼 인자하시고 높은 덕성을 지니고계시는분은 아직 만나본적이 없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부위원장, 아랍법률가동맹 서기장 샤피크 아르쉬다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친히 노를 저으시면서 홍명희선생에게 산보도 하고 배도 타면서 건강을 돌보라고 당부하시였다.

《나는 진정 세계를 향하여 소리높이 웨치고싶다.

만약 그 누가 이 세상의 가장 뜨겁고 크나큰 사랑의 품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것은 곧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품이라고 나는 서슴없이 대답할것이다.

그렇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사랑의 품은 그대로 태양의 품이다.

태양의 품이 있어 만물이 생을 이어가듯이 위대한 주석각하의 사랑의 품이 있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들의 참된 삶은 이어지고있으며 육체적생명만이 아니라 정치적생명도 영원히 이어지고있는것이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에이·라힘



월남자가족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1959. 5.2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남조선출신인 리화순녀성을 친히 접견하시여 다 기대운동의 선구자인 그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1968. 5)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그때 접견석상에서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해서 공명정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여주시였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문제를 두고 경애하는 주석께서 얼마나 심려하고계시는가를 가슴뜨겁게 느꼈다.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주석의 이 심려속에 남북의 전체 조선인민을 한품에 안으시여 그들에게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려는 고매한 덕성이 깃들어있는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였다.》

일본 와세다대학 조교수 니시가와 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남조선출신 간부들을 양성하는 학교인 송도정치경제대학을 친히 찾으시여 학생들의 식생활형편을 보살펴주시였다.(1960. 9. 2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그처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들을 다 보살피고계신다. 그분께서는 인민들의 집을 건설할 때나 대학생들의 식당과 농민들의 부엌을 건설할 때나 그들이 사는데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바로잡아주고계신다.
그분께서는 그 어디를 찾으실 때면 먼저 물으시는것이 근로자들의 건강이며 인민들의 생활이다. 그분께서는 이르는곳마다에서 인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념려하시여 뜨거운 사랑으로 보살펴주고계신다.》

에꽈도르 《볼룬따드》출판사 사장 움베르또 오르띠스 프로레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1차 재일동포녀성조국방문단 성원들을 따뜻이 만나주시였다.(1973.12.16)

《김일성주석은 참으로 세계에서 가장 걸출한 영웅이시며 불패의 장군이시다. 그분께서는 뛰여난 령군술을 지니신 령장이시면서도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탁월한 철학가이시다. 그러면서도 그분께서는 인간성이 특히 풍부하시여 확고한 사랑의 신념으로 사상,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을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때 내가 뵈온 김일성주석의 모습은 바로 이국땅 일본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어온 재일조선공민들을 넓은 한품에 안으시여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어주시고도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더 휘황한 래일을 가져다주기 위해 언제나 심려하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사랑에 넘치신 자애로운 모습이였다.

바로 그분의 그 뜨거운 사랑이 공화국의 방방곡곡에서 귀국자들의 보다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로 꽃피고있는것이다.》

일조협회 니이가다현련합회 회장 가와하라 오도마쯔

《인민들은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김일성동지를 태양으로 우러러모신다. 이렇듯 인민들은 무궁무진한 힘을 주시고 언제나 뜨겁게 고무하여주시는 그분을 우러른다.

우리 인도에서도 태양을 만복의 상징으로 내세운다.

김일성동지께서 자기 조국을 위하여 벌려오신 헌신적투쟁으로 하여 〈태양〉으로 높이 칭송을 받게 되시는것을 그 누가 부인할수 있으랴.》

인도 《인디안타임스》 주필 비슈와나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미국에 있는 《배달민족회》 의장인 최덕신선생을 따뜻이 환대하시였다.(1981. 7. 1)

《본인은 이북을 처음 방문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는 특별한 영광을 지니였습니다. 이 과정에 본인은 김일성주석께서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사상과 출중한 인품, 숭고한 인덕에 깊이 매혹되고 이끌리여 그분을 진심으로 경모하게 되였습니다.…

본인은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일성주석에 대한 경모심과 신뢰감을 깊이 하면 할수록 이 위대한분의 치하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며 통일성업에 헌신하는것이 한생을 값있게 총화지울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된다는 신념을 더욱더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였습니다.》

—공화국에 영주하면서 여생을 조국통일성업에 바치겠다고 한 전 남조선 《외무부장관》이며 《국군》군단장이였던 최덕신선생이 발표한 성명(1986. 9. 25)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미국에 있는 《조국통일촉진회》 회장인 김성락선생을 반가이 만나주시였다.(1981. 7. 3)

재미 《조국통일촉진회》 회장이며 《한국인교회련합회》 고문인 목사 김성락선생은 고향을 방문하고 친척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나는 이북의 현실을 의심하고 왔기때문에 그 누구의 설명도 귀담아듣지 않고 오직 내 눈으로 확인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김일성주석님이시야말로 위대한 수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느님이외의 그 누구에게도 머리숙여 인사를 해본적이 없는 기독교목사이지만 하느님보다 더 거룩하고 위대하신 김일성주석님께만은 허리굽혀 큰절을 드리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온 나라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옷을 비롯한 여러가지 귀중한 선물들을 안겨주시고 친히 평안남도 안주군 연풍고등중학교에 나가시여 학생들에게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1977·4)

《김일성주석께서는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어린이들을 귀중히 여기신다고 한다. 확실히 모든 가정과 사무실들에 모셔진 김일성주석의 사진을 보아도 김일성주석께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계시거나 그들속에 계시는 모습이 많았다. 바로 이것은 김일성주석께서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돌리고계시는가를 보여주는것이였으며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여 그들이 례절이 바른 아이들로 자라는가 하는 리유를 납득할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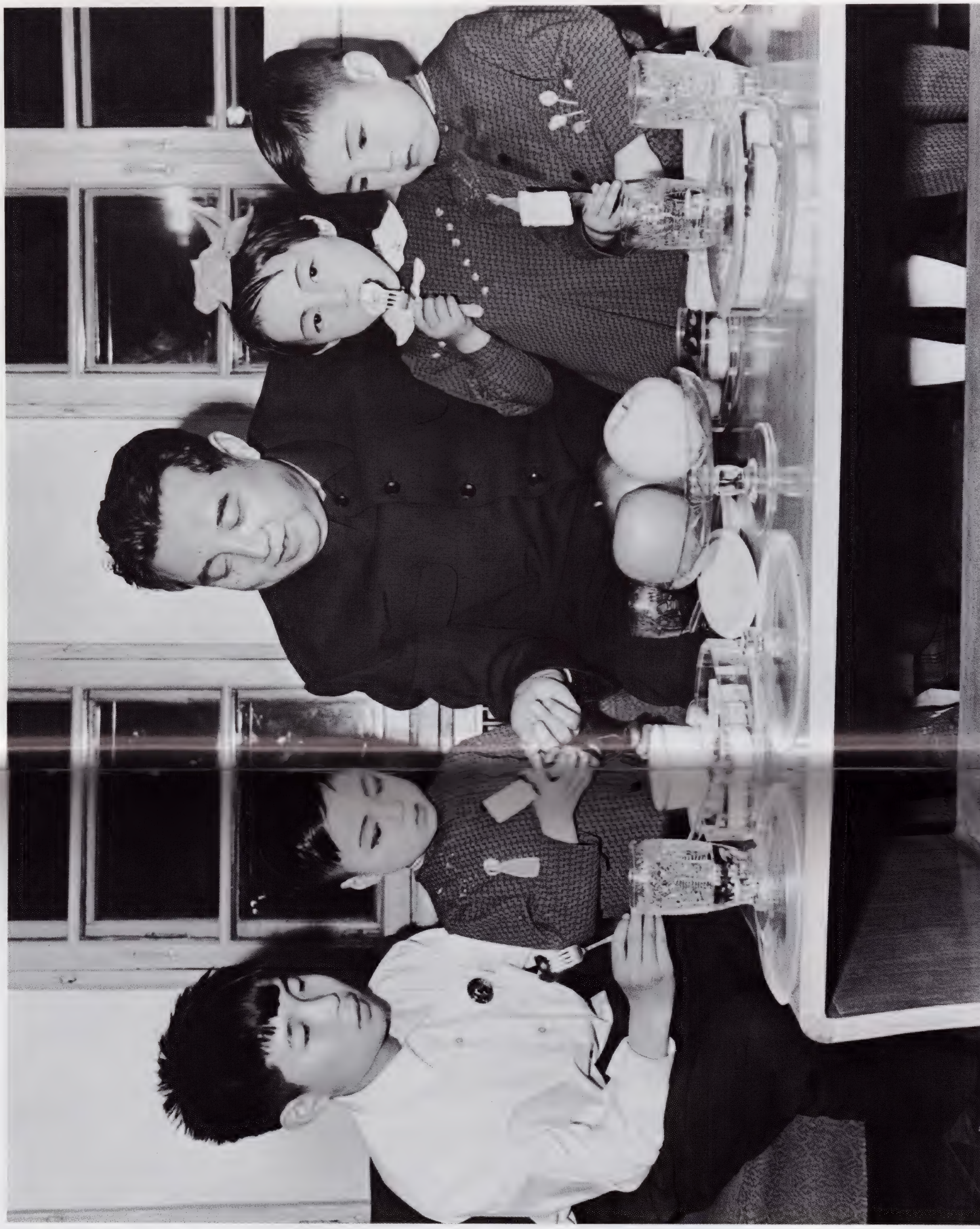
일본신문 《혹고꾸신붕》기자 기시 이와오

《조선의 그 어디에나 김일성주석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곳이란 없다. 이 손길은 모든 인민을 한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가셔주기 위하여 돌리시는 뜨거운 인간애가 넘치는 친어버이의 손길이다.

참으로 그분은 인민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때문에 그분의 존함은 현대력사에는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인류력사에 기록될것이다.》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 위원회 서기장 힐베르또 싸빠따 이싸사



세쌍둥이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1972·4)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의 새세대들을 위하여서는 모든것을 다하여야 한다고 현명하게 가르치시였다.

그분께서는 조선에서는 어린이들이 〈왕〉이며 그들을 위해서는 아낄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분께서 하신 이 말씀과 위대한 구상은 그대로 실천에 옮겨져 조선은 어린이들의 진정한 락원, 행복의 보금자리로 변모되였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그 결과가 어떠한것인가를 직접 보고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조선의 어린이들은 실로 행복한 아이들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다.》

오스트랄리아 평화인사, 시인 스탠리 무어



학생들에게 선물옷견본을 입혀보시고 옷을 더 잘 만들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근로하는 인민대중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는 위대한 인품을 지니신 참된 인민의 지도자이시다.

그분께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돌보시는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사명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놓고 로고를 다 바치고계신다.

오늘 조선인민이 누리고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근저에는 바로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기울이시는 그분의 숭고한 덕성이 흘러넘치고있다.

참으로 그분의 정치는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정치이다.》

수리남민족공화당 위원장,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수리남위원회 위원장 로빈 이. 라벨레스



검덕광업종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분께서는 광부들의 로동조건을 보살펴주시려고 인차를 타시고 지하천척 갱안으로 들어가고계신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해박한 지식, 탁월한 령도예술을 지니고계실뿐아니라 끝없이 겸손하시고 소박하시며 인민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시다.

그분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주 시간을 내시여 공장과 기업소를 찾으시며 깊은 갱속에까지 들어가시여 생산현장의 실태를 깊이 료해하시고 로동자들에게 보다 좋은 로동조건을 마련해주신다.

그분께서는 늘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가정을 찾으시여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온갖 방조를 주시며 신심을 안겨주고계신다.》

스리랑카 전 국회의원, 조선의 통일을 위한 스리랑카 전국위원회 부위원장 쟈야 파티라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두차례나 1등의 영예를 쟁취한 박영순선수를 높이 치하하시고 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1975.3.17)



한 예술인에게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수여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살펴주고계신다.…

자애에 넘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전사들을 혁명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고 그들모두를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면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고계신다.》

아프카니스탄 공민 에이. 라기브



희열에 넘친 년로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꽃피워나가시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보람과 긍지가 한껏 어려있다.(황해제철소에서)

《주체사상이 구현된 나라, 조선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된 이 나라의 모습에 황홀해한다.

주체조선은 어린이들이 〈세상에 부럼없어라〉라고 노래하듯이 말그대로 락원이다.

주체조선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사는 인민의 락원이며 사람들사이의 사랑, 동지들사이의 사랑이 활짝 피여나고 남녀의 차별이 영원히 가셔진 락원이다.》

파키스탄변호사,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 모함마드 아슬람 나기



보통강기슭의 공원에서 휴식을 즐기는 로동자가정

《조선에서는 굶주리는 사람, 먹을것을 찾아 정처없이 헤매는 어린이, 구두닦이로 연명해가는 사람, 벌거벗고 다니는 미친 사람,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실업자들, 오물과 같은것은 찾아볼수가 없다.

조선에서는 모든것이 아름답고 모든것이 예술적이며 모든것이 조화롭다.》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 서기장 힐베르또 싸빠따 이싸사



어느 한 로동자가정에서…

《조선이 이룩한 업적은 말그대로 위훈이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아세아에 대한 틀에 박힌 그 어떤 표상도 조선에는 맞지 않는다. 조선은 결코 인도나 일본, 타이가 아니다. 조선은 어디까지나 말그대로 〈맑은 아침의 나라〉이다. 이 명칭은 손색없는 명칭이다. 공화국에는 인력거도 짐군도 없고 한푼의 돈을 얻으려고 동냥하는 거지도 없다. 이것이 바로 수도 평양에 도착한 순간부터 받아안은 가장 커다란 인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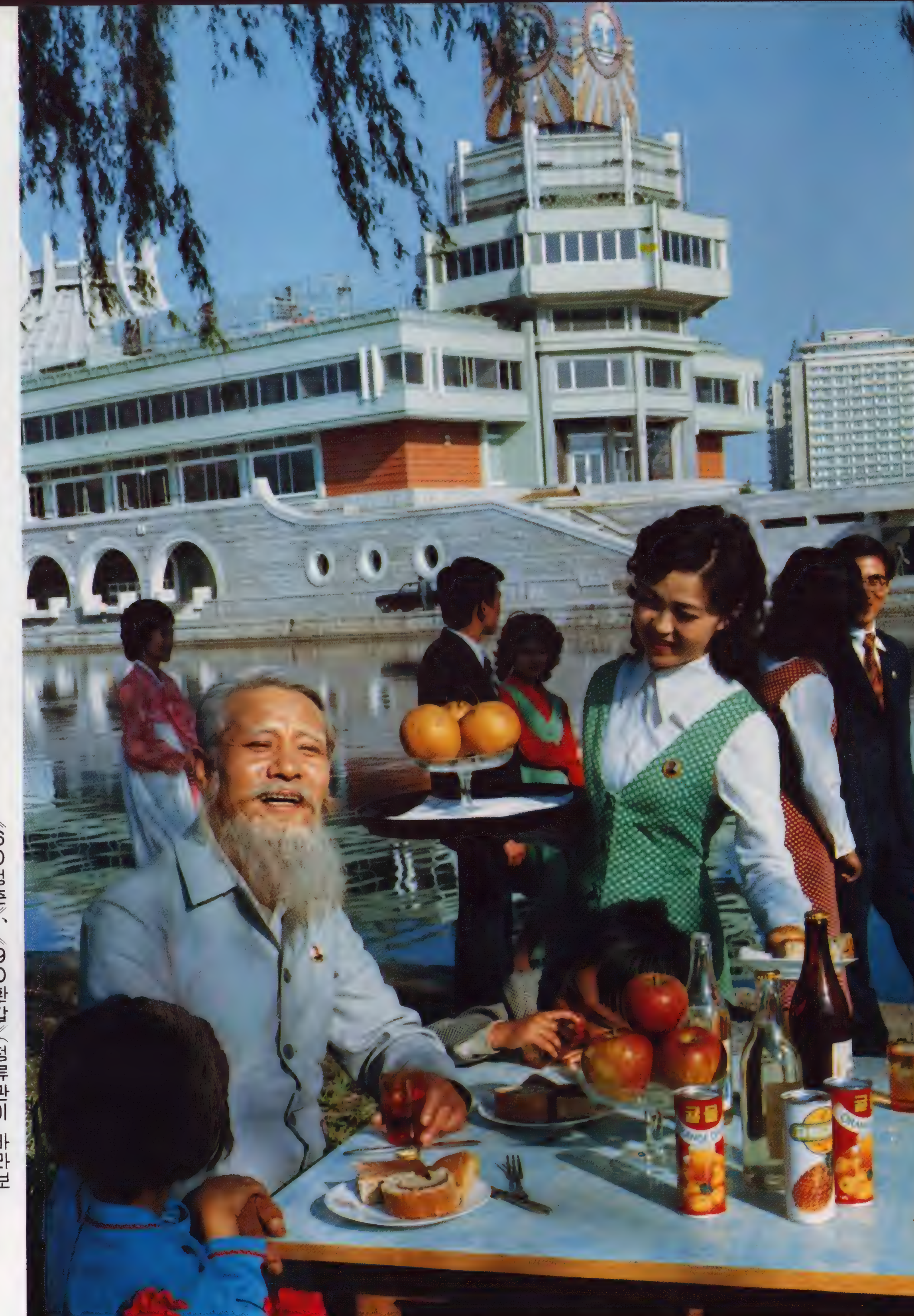
프랑스로동총련맹기관지 《라 비 우브리애르》 부주필 뤼크 끼나





새집들이 경사가 났다. 평안남도 문덕군 동림리에서는 280여세대의 농민들이 나라에서 지어준 주택으로 한꺼번에 이사를 했다.

새집으로 이사한 기쁨 온 방안에 차넘치는듯…



《60청춘》, 《90환갑》(청류관이 바라보이는 보통강반의 공원에서)

《가장 놀라운것은 나날이 향상되는 인민들의 생활수준이다.
수많은 발전된 서방나라들이나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조선은 빈민굴과 거지, 륜락의 거리가 없고 음탕한 생활양식을 모르는 나라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여 자유롭게 살고있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더욱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는 나라, 조선을 보았다.》

가이아나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토마스 싼디포드

《몇십년전만 하여도 조선은 식민주의의 억압과 봉건적착취를 강요당해오던 나라였다. 그러한 조선이 오늘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로 사회경제적으로, 정치문화적으로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전변되였다. 정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기아와 빈궁도 없으며 패덕을 일삼고 호화롭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극소수의 억만장자도 그들의 기업체도 없다. 이 나라에서 사회물질적부의 생산은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리하여 조선에서는 김일성주석의 배려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인민대중이 고르롭게 잘살고있는것이다.》

빠나마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 기자 마리오 아우구스또 로드리게스

남조선출신인 신성우박사는 영예의 《김일성상》을 수여받은 날 초대연을 베풀고 친지들앞에서 오늘의 고마운 은덕에 대해 감회깊이 말하고있다.





휴양하러 오는 농민들의 얼굴마다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고마움과 기쁨이 가득히 실려있다.(평안남도 평원군 석암휴양소에서)

휴양기간에 생일을 맞이하는 농민휴양객들을 위해 휴양소식당에서는 매일같이 생일잔치를 차린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덕신선생이 조국을 방문한 재프랑스교포 리응노 선생과 옛시절의 회포를 나누고있다.



일본에서 살다가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 농학박사의 칭호를 받은 귀국자 신상연박사와 그의 가족들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하여온 전 남조선 중앙정보부 요원이며 해외파견 정보관이였던 정동의동포는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다.





학생복과 학용품일식이 갖추어진 귀중한 선물을 받아안은 어린이들의 얼굴마다에는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여났다.(평안남도 북창군에서)

《지금 나의 머리에는 하늘을 떠이고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학생소년궁전, 과학탐구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 대렬을 지어 활보하며 행복에 겨워하는 유치원어린이들의 얼굴등이 엇바뀌여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모든 학생, 모든 어린이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고 배움의 길을 열어줄수 있었는가, 그것도 미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3년간의 전쟁으로 재더미로 변했던 조선에서…)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는다.

조선의 어린이들, 학생들이 누리는 이 모든 행복, 이 모든 기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친아버지와 같은 어버이사랑, 한없이 넓은 자애로운 품, 여기에 시원을 두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년학생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조선을 떠메고나갈 미래의 주인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고계신다. 그분께서는 조선의 모든 학생들에게 해빛밝은 아담한 학교를 세워주시고 포근한 솜옷과 신발, 학용품들을 골고루 나누어주시였다. 그분께서는 현지지도에 나가시면 학교들을 잊지 않으시고 꼭 들리시며 길에서도 차를 세우시고 학생의 옷매무시를 바로잡아주시며 공부를 잘하는가고 다정하게 물어보신다.

얼마나 따뜻하고 위대한 사랑의 품인가.》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공군교육대학 학장, 철학박사 우킹 마윈



가족, 친지들의 축하를 받으며 조국해방 40돐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집을 나서는 인민배우 문예봉의 얼굴에는 삶의 보람과 긍지가 넘쳐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오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이 모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실제적으로 누리고있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고있다.

그러기에 세상사람들은 오늘 사회주의조선을 〈근로인민의 리상사회〉,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라고 찬양하고있다.》

르완다신문 《라 럴레브》 책임주필 베. 우자람바



《우리는 평양에서 가까운곳에 자리잡고있는 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았다.

1,000여명의 어린이들을 수용하는 이 야영소의 모든 시설들은 이 나라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배우며 자라고있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의 모든 어린이들은 누구나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다룰줄 아는 음악적재능이 있는 행복한 어린이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문화적이고 다방면적인 교육을 보고 우리는 참말로 감동되였다.》

서부독일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월프강 파크

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서 뽀트놀이를 즐기는 야영생들



일조우호련대 도쿄의회 대표단 성원들이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참관하면서 야영소가 훌륭하게 꾸려진데 대해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송림애기궁전, 여기서는 황해제철소 로동자들의 어린이들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보육교양되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혁명의 후계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는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우월한 보육교양방법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자금으로 매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 기관, 가두 등 녀성들이 살며 일하는 모든곳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만들어주도록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탁아소, 유치원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 것을 선참으로 받으면서 미래의 꽃으로 무럭무럭 자라고있다.》

파키스탄의 사회활동가 무즈타바 후쎄인 바띠

《오늘 조선에서는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할데 대한 주체적인 시책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공장, 농촌, 가두 할것없이 모든곳에 현대적시설을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이 꾸려져 어린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행복하게 자라나고있다. 이렇게 훌륭한 선진적인 보육교양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에꽈도르 《볼룬따드》출판사 사장 움베르또 오르띠스 프로레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350만명의 어린이들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자라나고 있으며 510만명의 학생들이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들에서 무료교육을 받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병원이 어디에나 있다. 벌써 1953년 1월초부터 전체 주민들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금제도가 철폐된 유일한 나라이다. 이 나라에서 세금제도는 1974년 4월 1일에 영원히 페지되였다.

여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리유의 하나가 있다.》

전인도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에이취. 디. 말라비아

창광유치원 어린이들의 유희놀이





어린이들의 행복의 요람 창광유치원(건평 1만 2천여평방메터)



공화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사진전람회장을 찾은 방글라데슈의 청년들이 평양산원에 대한 설명문을 읽으며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은혜로운 해빛넘치는 평양산원에서…



복받은 네쌍둥이, 첫째 김일순(녀자), 둘째 김편순(녀자), 셋째 김단(남자), 넷째 김심순(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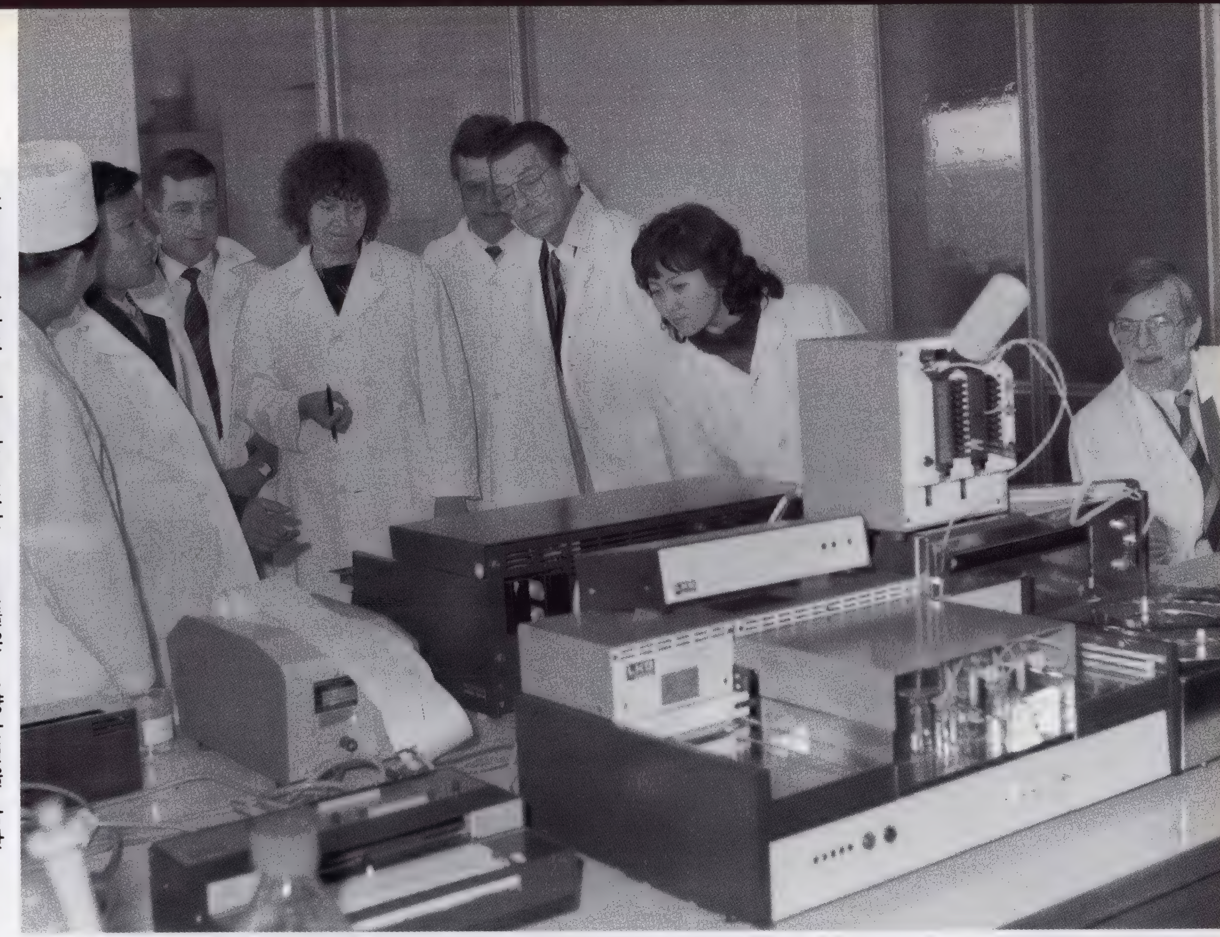
네쌍둥이와 부모들이 받은 금반지와 은장도. 나라에서는 세쌍둥이와 네쌍둥이의 출생을 기념하여 쌍둥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행복과 호신의 상징으로 금반지와 은장도를 주고있다.

《조선의 어린이들은 날 때부터 국가부담으로 먹을 권리, 입을 권리, 공부할 권리, 치료받을 권리 그리고 제일 좋은것을 차지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무척 사랑하시며 그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고계신다.》

에꽈도르 《볼룬따드》출판사 사장
움베르또 오르띠스 프로레스

《조선은 〈어린이들의 왕국〉이라고 불리울만큼 어린이들이 사랑과 귀여움을 받고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볼수 없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제정되여 어린이들은 모두 아무런 걱정없이 마음껏 배우며 무럭무럭 자라고있다.》

일본 와세다대학 조교수 니시가와 쥰



스웨리에공산주의좌익당대표단 성원들은 평양산원을 참관하면서 산원이 현대적으로 훌륭히 꾸려진데 대해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벌가리아 뽈로브디브의학대학 학장과 가족일행은 평양산원을 돌아보면서 산원의 시설들이 현대적인데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전《김일성학원》원장이였던 게오르기 아나스따쏘브부부와 1956년 벌가리아를 방문하시였을 때 만나시였던 와씰까 니끼포로바와 그의 가족을 따뜻이 만나주시였다.(1984. 6. 17)

1984년 6월, 벌가리아를 방문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게오르기 아나스따쏘브(1959년에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음)와 와씰까 니끼포로바(1956년 6월 벌가리아를 방문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림)를 따뜻이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게오르기 아나스따쏘브부부와 와씰까 니끼포로바의 가족을 만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조선과 벌가리아 두 나라 지도자들의 친분관계는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련결되여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게오르기 아나스따쏘브부부와 와씰까 니끼포로바가족이 조선을 방문하도록 친절히 초청하시였으며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선물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쏘련의 국제주의전사 야. 떼. 노비첸꼬를 따뜻이 만나시여 그를 조쏘친선의 상징으로, 영웅으로 높이 평가하시였다.(1984. 7. 3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1984년 5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및 국가 대표단을 인솔하시고 모스크바로 가시는 길에 쏘련의 지방도시 노보씨비리쓰크역에서 해방직후 조선에 와서 사업한 야. 떼. 노비첸꼬를 만나시고 뜨겁게 포옹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38년전 평양역전광장에서 진행된 3.1인민봉기 27돐기념행사때 원쑤들이 주석단을 향해 던진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나섬으로써 조선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한 그의 영웅적소행을 감명깊게 회고하시고 근 40년만에 다시 만나니 참으로 반갑다고 하시면서 그를 조쏘친선의 상징으로, 영웅으로 평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의 건강과 나이, 생활형편에 대하여 세세히 알아보시고 부인과 손자들을 데리고 조선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후 공화국을 방문한 국제주의전사 야. 떼. 노비첸꼬를 따뜻이 대해주시였다.



희랍선박 《쩬따브르스》호 글레자끄스 와실리오스선원은 공화국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설명절을 뜻깊게 보내고있다.

선창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온몸에 치명상을 입었던 희랍선박 《쩬따브르스》호 글레자끄스 와실리오스선원은 함흥의학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원상대로 몸을 회복하였다.

그는 조선의 무상치료제도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봉사제도라고 하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 몇번이고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베를린시에 사는 한 로동자의 가정을 방문하시였다.(1984. 6. 1)

1984년 6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베를린시내를 돌아보시면서 마르짠구역 노위스노거리 68호동 아빠트에 사는 공구제작공장 로동자인 프랑크 쉬레데르의 가정에 들리시였다.

언제나 존경하여마지않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을 자기 가정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니게 된 프랑크 쉬레데르와 그의 가족들은 감격과 기쁨을 금치 못해하면서 그분께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인부부의 안내를 받으시며 살림방들을 돌아보시였으며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담화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일사회통일당의 정책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 헌신하고있는 주인부부를 축하하시고 그들이 딸 세쌍둥이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후비대로 잘 교육교양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이 가정의 행복을 축원하시면서 기념품을 남기시였다.



인민에 대한 참된 사랑

김일성주석께서 지니신 자애론 사랑
인민의 자유와 행복 위해 바치시는
식을줄 모르는 영원한 사랑
우리모두를 한품에 안아주시는
정녕 그 사랑에 비길것 세상에 없어라

김일성주석의 사랑은
끝없이 맑고 따사로운 사랑
갈 길 잃고 헤매이는 지친 이 몸에도
그 사랑의 손길 닿아
김일성주석 우리를 인도하시네

김일성주석께서 지니신 사랑
인자하신 사랑 넘쳐나
우리의 가슴 불타게 하니
그보다 큰 사랑 세상에 없어라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우리의 스승
이신 김일성주석
우리는 다함없는 마음으로 우러르네

아, 우리모두 김일성주석의 말씀
받들어나가자
아, 방랑의 발걸음 멈추고
수령님의 사랑의 품속에, 자유롭고
신성한 그 품에
우리의 운명을 의탁하자!

다우다 오·에스·싼끄(시에라레온
《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

《희세의 걸출한 수령》、《자주시대의 위대한 령도자》、《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수령》、《세계혁명의 저명한 령도자》

—외국인들의 반향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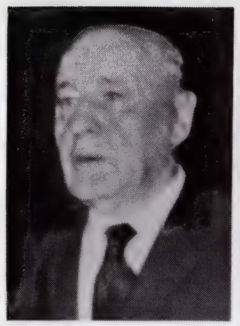


인도의 어느 한 가정에서는 삼지연못가를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립상화를 정중히 모시고있다.



중국공산당 중앙고문위원회 주임 등소평

《김일성주석은 조선의 프로레타리아혁명가들의 대표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국제무대에서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정의를 주장하며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고 여러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심으로써 제3세계의 단결을 강화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시였습니다.》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

《나는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상임위원회와 내각 그리고 우리 근로인민의 이름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시며 조선인민의 가장 존경하는 령도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 및 로동운동의 탁월한분이신 김일성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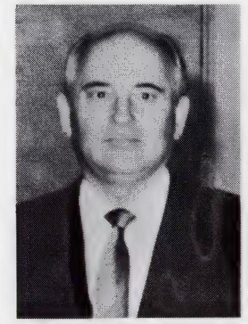
애급아랍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드 후쓰니 무바라크

《우리는 유구한 력사를 가진 귀국을 방문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귀국인민이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한데 대하여 더욱 탄복하게 되며 그를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말따공화국 대통령 아가타 바르바라

《우리는 조선의 미래가 영광스럽고 휘황찬란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하면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에서 계속 고무를 받고있기때문입니다.
김일성주석의 헌신성과 끝없는 정력, 불굴의 의지는 특출하고 비범한것이며 세계의 다른 지도자들에게 모범으로 되는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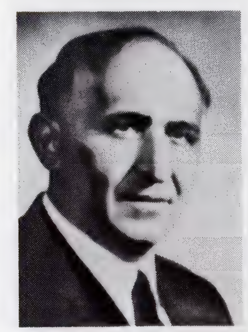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미하일 쎄르게예비치 고르바쵸브

《국제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저명하고 경험있는 활동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담화과정에 내놓으신 의견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합니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내각수상 피델 까스뜨로 루쓰

《나와 나의 동지들은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이시며 현명한 령도자이신 김일성주석의 재능과 인품에 대한 선전자가 될것이라는것을 당신들에게 확언합니다.》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또도르 집꼬브

《김일성동지,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위대한 벗으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공인된 령도자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로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스꼬슬로벤스꼬 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 구스따브 후싸끄

《우리는 존경하는 김일성동지, 당신을 용감한 조선인민의 령도자로, 반제투사로, 국제공산주의 및 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로 환영하고있습니다.》



쏘련을 방문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쏘련인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에 답례를 보내시였다.(1984.5)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와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미하일 쎄르게예비치 고르바쵸브는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1986. 10)



중국을 방문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중국인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시였다.(1975. 4)

《김일성동지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세련된 위대한 수령이시며 조선의 프로레타리아 혁명가들의 걸출한 대표자이십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의 프로레타리아혁명위업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과 세계 인민들의 진보를 위한 위업에 바치신 걸출한 공헌은 온 세상에 길이길이 찬연한 빛을 뿌릴 것입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1982년 4월 14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유람선을 타시고 엘바강의 량안에서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유람하시였다.(1984. 5)

《**김일성**주석은 자주성의 시대의 가장 탁월하고 이름높은 령도자의 한분이시며 세계로동운동의 위대한 스승의 한분이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의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령도하시여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 그분께서는 조선력사에서 첫 인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으며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조선을 발전된 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시였다. 그분께서는 또한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시여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재더미로 되였던 나라를 복구하는 방대한 사업을 수행하시였다. 이렇듯 그분은 해방운동의 영웅이시며 국가건설의 영재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세계프로레타리아혁명가이시며 전세계 진보적운동의 위대한 스승이시다.》

네팔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김일성**주석의 로작출판편집부》 주필 마니크 랄 슈레스타

《온 세계 인민들이 **김일성**주석은 진정한 혁명가이시며 위대한 애국자이시며 용감한 반제투사이시며 동시에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라고 칭송하고있다. 그들은 그분을 혁명적리론을 자기 나라에서 구체적현실로 전변시키신 위대한분으로 높이 모시고있다.

그들은 모든 발전도상 나라들의 공동의 과업인 반제투쟁 특히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김일성**주석으로부터 배우고있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의 수령이실뿐아니라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을 고무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그분은 진정 세계의 력사적인 천재이시다.》

전인도국회의원, 인도조선친선협회 총서기 에이. 엔. 비디아란까르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의 무산계급과 피압박인민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시였다.

그분의 투쟁, 그분의 생애, 그분께서 이룩하신 업적이 의의깊은것으로 하여, 그분께서 지니고계시는 숭고한 국제주의사상으로 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인민들과 모든 대륙의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 서방나라의 근로인민들과 세계의 량심있는 모든 사람들의 칭송과 사랑을 받고계신다.

혁명으로 들끓고 낡은것을 반대하며 새것을 요구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시대의 상징이시며 우리 시대를 전진시키는 추동력이시다. 그분은 자주성과 자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시대의 혁명투쟁과 그 승리의 상징이시다.》

쏘련에서 공부하고있는 시에라레온 류학생, 학사 모하메드 에스. 끄르마

벌가리아를 방문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쁠로브디브시의 우박방지로케트발사장을 참관하시고 그곳 종업원들로부터 정성들여 골라 딴 양벗을 받으시였다. (1984.6)





로므니아를 방문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환영연도의 친선의 대원무대렬에 들어서시여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다함없는 존경을 받으시였다.(1984. 6)



뽈스까를 방문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와르샤와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에 답례를 보내시였다.(1984. 5)

《참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인류해방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각하를 높이 모시고있는 조선인민보다 행복한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를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또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우리 주체사상신봉자들의 한없는 영광이며 자랑이기도 하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르듯이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우러러따르며 배우고있다.》

파키스탄 자주연구쎈터 책임자 자파르 로드히



《**김일성**주석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그분께서는 복잡한 국제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쁠럭불가담운동과 신흥세력나라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고계신다.

그분께서 시대와 혁명,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쌓아올리신 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진정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존함은 세계인민들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상징, 시대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이다.》

르완다신문 《라 럴레브》 책임주필 베. 우자람바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베오그라드의 시민들(1984. 6)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상무위원회 위원장 베쎌린 쥬라노위츠와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드라고슬라브 마르꼬위츠의 따뜻한 영접을 받으시였다.(1984. 6)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헌으로 하여 광범한 세계인민의 끝없는 존경과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계신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그분을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하고 걸출한 맑스-레닌주의자〉, 〈20세기의 위대한 태양〉,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찬란한 빛을 뿌리는 붉은 태양〉으로 한결같이 칭송하고있다. 5대륙의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인민들은 그분의 사상과 리론을 심오히 학습하여 자기들의 신념으로, 투쟁의 무기로,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위업, 인류의 진보를 위한 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계시며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고계신다. 그분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업적, 혁명사상과 세련된 령도, 고매한 덕성은 인류의 혁명운동력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것이며 세계에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릴것이다.》

네팔 진보서적출판사 사장 엔. 지. 바이드야

《김일성주석은 참으로 위대한 품격과 함께 높은 권위를 겸비하고계시는분이시다.

현시대에 있어서 김일성주석의 관심과 발기 그리고 그분의 령도를 떠나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변이란 거의 없다.

바로 김일성주석은 력사가 전환기를 맞이하고있는 현시기 인류에게 찬란한 미래사회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시고 그 사회에로의 로정을 휘황히 밝혀주신 우리 시대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베닌 공보 및 선전부 연구계획국장 토마스 메냐싼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쁘라하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쁘라하시위수사령부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1984. 6)





웽그리아를 방문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부다뻬슈뜨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에 답례를 보내시였다.(1984. 6)

《진정 위대하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수 없는것이다. 그분은 투쟁하는 인민들이 바라는 모든것을 겸비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데 대하여 나는 서슴없이 말하고싶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부유한 땅으로, 번영하는 땅으로 전변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분이신 **김일성**주석의 령도의 현명성에 의한것이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조선인민이 부럽다. 이 세상에는 **김일성**주석처럼 인민들이 높이 존경하고 우러러모시는 그러한분은 없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같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다.》

시에라레온신문 《네온》 부주필 싸므엘 제이. 메쩨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은 오늘 인민대중이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 자주성을 참답게 실현하고 자기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세계의 모든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성스러운 교과서로 되고있다. 이것이 바로 **김일성**주석께서 인류에게 기여한 가장 큰 공헌이다.

이리하여 바로 그분께서 이룩하신 업적과 그분의 빛나는 영상은 수억만 혁명가들의 붉은 심장속깊이 아로새겨지고 소중히 간직되고있는것이다.》

버마기자 네이 윈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동상이 길림육문중학교에 새로 건립되였다.(1986.10)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길림육문중학교에서 공부하시던 교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영광스러운 초기혁명활동사적이 깃들어있는 중국 길림성 길림 육문중학교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이 새로 건립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부하시며 혁명활동을 전개하신 뜻깊은 사적을 길이 전하며 그분께서 중국의 혁명가들과 어깨겯고 싸우시며 마련하신 중조친선을 대를 이어 전하기 위하여 중국의 당과 정부에서는 새 중국이 창건된후 육문중학교의 이름을 회복하고 그분께서 공부하시던 교실을 《김일성동지독서기념실》로 명명하였으며 그후 학교정원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신동상을 세웠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서는 날로 강화발전하고있는 중조친선을 더욱더 빛내이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미 건립한 반신동상대신에 석청동으로 된 전신동상을 새로 건립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고 유능한 기술일군들을 선발하여 1년반동안의 긴장한 창조적로력투쟁을 벌려 새 동상을 정성다해 훌륭히 세움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한 중국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길림육문중학교에 새로 세워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동상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건립한 동상들 가운데서 제일 큰 동상들중의 하나이라고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동상은 중국에서 건립한 첫 외국수반의 동상이다.



중국을 방문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방참관을 하시기 위하여 상해역에 도착하시였다.

《영명한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만민의 축복을 받으시며 인류의 천재로, 령도의 천재로 높이 솟아오르시여 시대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계신다. 그분을 지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혁명의 열풍이 밀려오는 우리 시대, 20세기의 가장 큰 영광이며 자랑이다.》

아프카니스탄 공민 에이. 라기브



중국을 방문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고문위원회 주임 등소평동지를 만나 담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을 경축하여 평양에서 진행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련환공연의 한 장면

김일성 그분은 인류의 태양
그 찬란한 빛발은 온 누리에 비쳐
가고
피압박인민들에게 해방을 안겨주고
계시여라
그분은 위대한 혁명투쟁의 상징
그분의 주체사상은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우리
들에게
불패의 힘을 안겨주고있어라
⋮
인류의 태양 김일성
그분은 싸우는 인민들의 승리의 기
수
그분은 자유와 독립의 기수
그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상징

김일성
그분은 인류의 태양
그분께서 벌리신 혁명투쟁
70성상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
적은
휘황찬란한 세계의 미래를 위해 바
쳐졌어라
오 인류의 태양 김일성
그분의 투쟁은 더욱더 빛나는 승리
로 장식되리니
4월의 명절을 맞이하여 인류는
그분의 만수무강을 충심으로 축원
하노라

—베닌 조선 친선 단결위원회
위원장 빠또누 쟝 마리가 쓴 시
《인류의 태양 김일성》에서—

당신은 태양이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이시여
당신은 가장 위대하신분
당신을 태양이라 우러름은
진정 삶의 원천이기에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주고
꽃과 열매, 기쁨을 주고
희망의 무지개를 안겨주거니

오 위대한 태양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였나니
우리는 당신의 아들딸로 태여나
당신의 따사로운 보살피심속에서
웃고 기뻐하고 노래부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이시여
당신의 빛발은 유난히도 따사롭고
당신의 품은 한없이 넓기에
우리는 행복과 기쁨에 넘쳐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래일의 희망을 안겨주시는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주체의 새세계 펼치시며
인류에게 영원한 봄만을 주시려
한평생을 다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이시여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방글라데슈방송국 기자 시라즈 쵸우드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릴 축전을 쓰고 있는 말리특별재판소 소장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분의 고매한 덕성에 대한 록음강연을 하고있는 꽁고인민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일을 경축하여 축하공연을 하고있는 뻬루예술인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칭송하는 노래를 작곡하는 적도기네 공업, 상업 및 기업장려성의 한 일군

천체의 별들을 모두 모아
진주옥석으로 만들어 드리고싶은
축원의 마음

수천, 수억만의 령롱한 무지개를
꽃다발로 엮어
영광드리고싶은 마음

설레이는 대양의 웃음으로
그 언제나 당신께
기쁨드리고싶은 충성의 한마음입니다

오, 빛나는 태양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빛날 태양
그분은 김정일동지!

—민주예멘의 한 청년시인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린 송시—



—세계 5대륙의 백수십 개 나라의 국가수반들, 당과 정부의 지도자들, 각계의 인사들로부터 보내온 선물—

(1985년 12월 31일 현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3만 8천여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6천 3백여점



국제친선전람관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 참가한 쏘련공산당대표단으로부터 선물을 받으시였다.(1980. 10. 1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중국공산당 및 정부대표단 단장으로부터 지성어린 선물을 받으시였다.(1978. 9)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프랑스사회당 당수 프랑쑤아 미떼랑으로부터 선물을 받으시였다.(1981. 2. 1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내각수상 피델 까스뜨로 루쓰로부터 꾸바 《호쎄 마르띠》최고훈장을 받으시고 굳은 악수를 나누시였다.(1986. 3. 10)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쏘련공산당 당일군대표단이 올리는 지성어린 선물을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참사대표단과 사무국대표단으로부터 선물을 받으시였다.(1982. 10. 7)

《우리는 묘향산에 자리잡고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였다. 국제친선전람관은 6층으로 된 독특한 현대적건축물이다.

여기에는 여러 나라의 이름있는 지도자들과 인사들, 주체사상연구소조들, 혁명조직들 그리고 국제적인 조직들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보내온 귀중한 선물이 대륙별, 나라별로 전시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한 영상을 모신 예술작품들, 희귀한 여러가지 귀중품, 민족의상을 비롯한 갖가지 선물들은 각이한 나라와 지역에서 각계각층 인사들이 보낸것이지만 거기에는 한결같이 그들의 지극한 정성이 깃들어있다.

참으로 그 모든것은 조선과 세계의 혁명력사에 영원히 기록될 김일성주석각하의 영웅서사시적인 업적을 칭송하여 보내온 영광의 선물인것이다.》

방글라데슈자주연구학회 바리살지역위원회
위원장, 교수 루훌 아민

《세계 각국으로부터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비서께 보내온 선물이 정말 많은데 대하여 감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오늘 자주성을 지향하는 온 세계 인민들이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주석을 흠모하여 충성심이 담긴 선물을 보내고있다는것은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람관에는 자주성을 옹호하려는 전세계인민들의 련대성과 단결이 있습니다.

조선인민과 전세계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존경하는 김일성주석동지와 김정일비서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 제8차대표단 단장 오까다 히로하루

《이 전람관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평가와 존경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시는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동시에 조선인민이 이룩한 문화적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축원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표단 단장 모함마드 이브라힘 알리

《우리는 오늘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국제친선전람관을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 국제기구들에서 보내온 수많은 선물들이 집결되여있습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온 이 모든 선물들은 그분들께서 자유와 독립,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을 위하여 헌신하시였고 또 헌신하고계시는 위대한 업적에 대한 경탄의 표시로 됩니다.》

유고슬라비아 실무대표단 단장 니꼴라에르 꼬위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올린 귀중한 선물들이 보존되여있는 국제친선전람관



국제친선전람관의 지성어린 선물들을 돌아보는 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이 한껏 어려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올린 상아조각 《만경대 고향집》(1977. 4. 15)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 드린 옥돌조각 《달리는 말》(1978. 5. 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홍콩 련화무역공사, 련복무역공사, 천흥선무공사, 화태행수출입유한공사에서 올린 상아공예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1982. 4. 15)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일본중의원의원 우쯔노미야 도꾸마가 올린 《법륭사 5층탑》 모형(1978·4·15)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 드린 대형2중투각자기꽃병(1978·9·9)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타이왕국 당 및 국회대표단이 올린 나무조각 《독립을 위한 투쟁》(1980. 10. 10)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집단적자력갱생과 남남협조에 관한 인도전국토론회 참가자일동이 올린 나무조각 《사자와 싸우는 코끼리》(1985. 4.15)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대표단이 드린 위장병칼과 훈장(1975. 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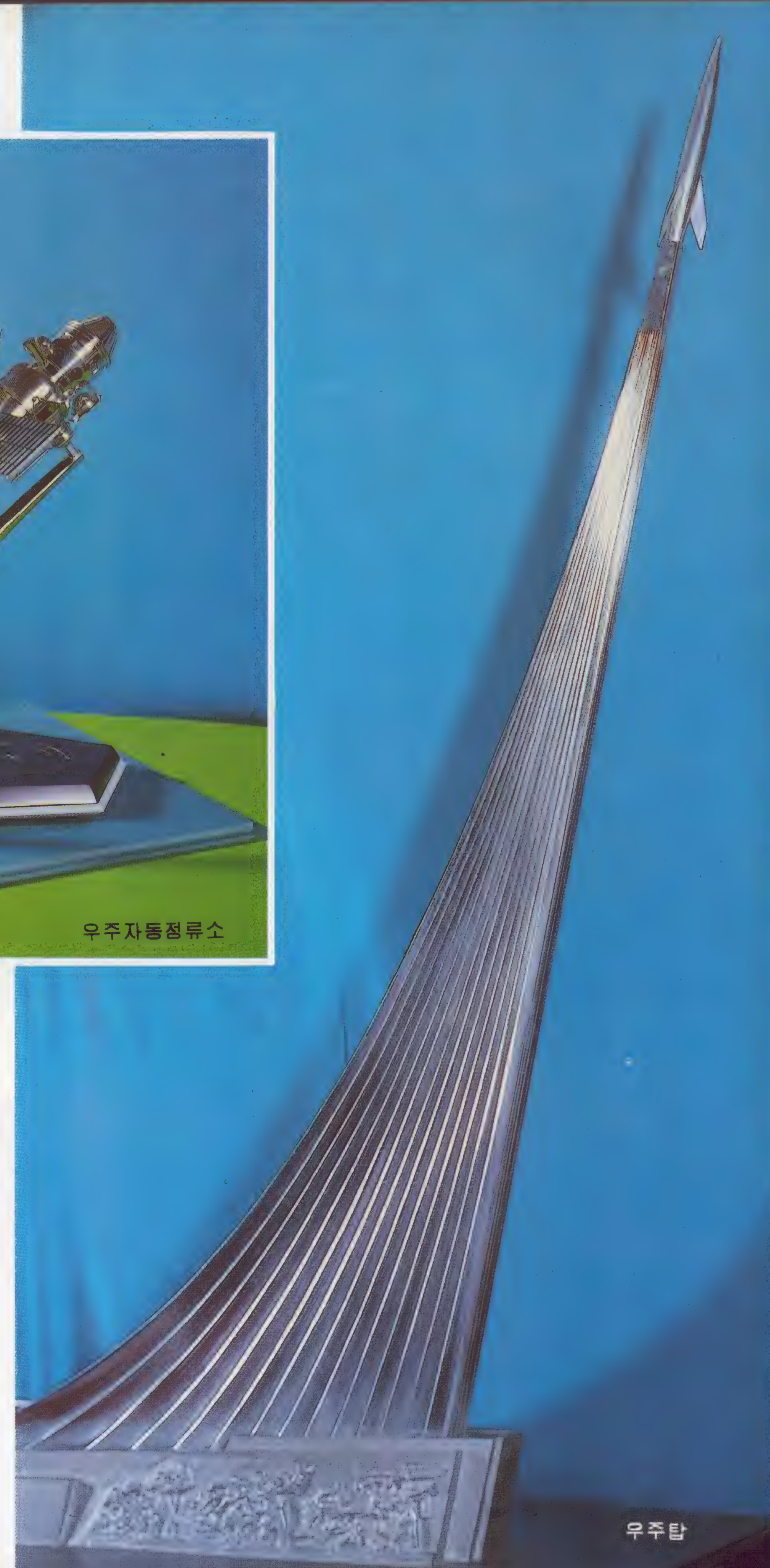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일본자민당출신 중의원 의원이며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회장 구노쥬지가 올린 도자공예 《말》(1979.4.15)



우주자동정류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쏘련내각에서 드린 우주탑과 우주자동정류소모형 (우주탑—1965. 8.15, 우주자동정류소—1968. 9. 7)



우주탑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국가쏘베트 위원장 니꼴라에 챠우쉐쓰꾸가 드린 도자기꽃병(1971.6.1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독일민주주의 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에리히 호네케르가 드린 장식용 도자기단지(1985.10.2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또도르 쥡꼬브가 드린 동조각 《빨찌산대원》(1983. 9. 9)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가 드린 조각 《녀성투사》(1970·6·16)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웽그리아사회로동당대표단이 올린 동조각 《녀투사》(1980. 10. 10)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드린 청화도자기꽃병
(1983. 6. 1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쏘련 당 및 국가대표단이 올린 동공예 《삼두말발구》(1985. 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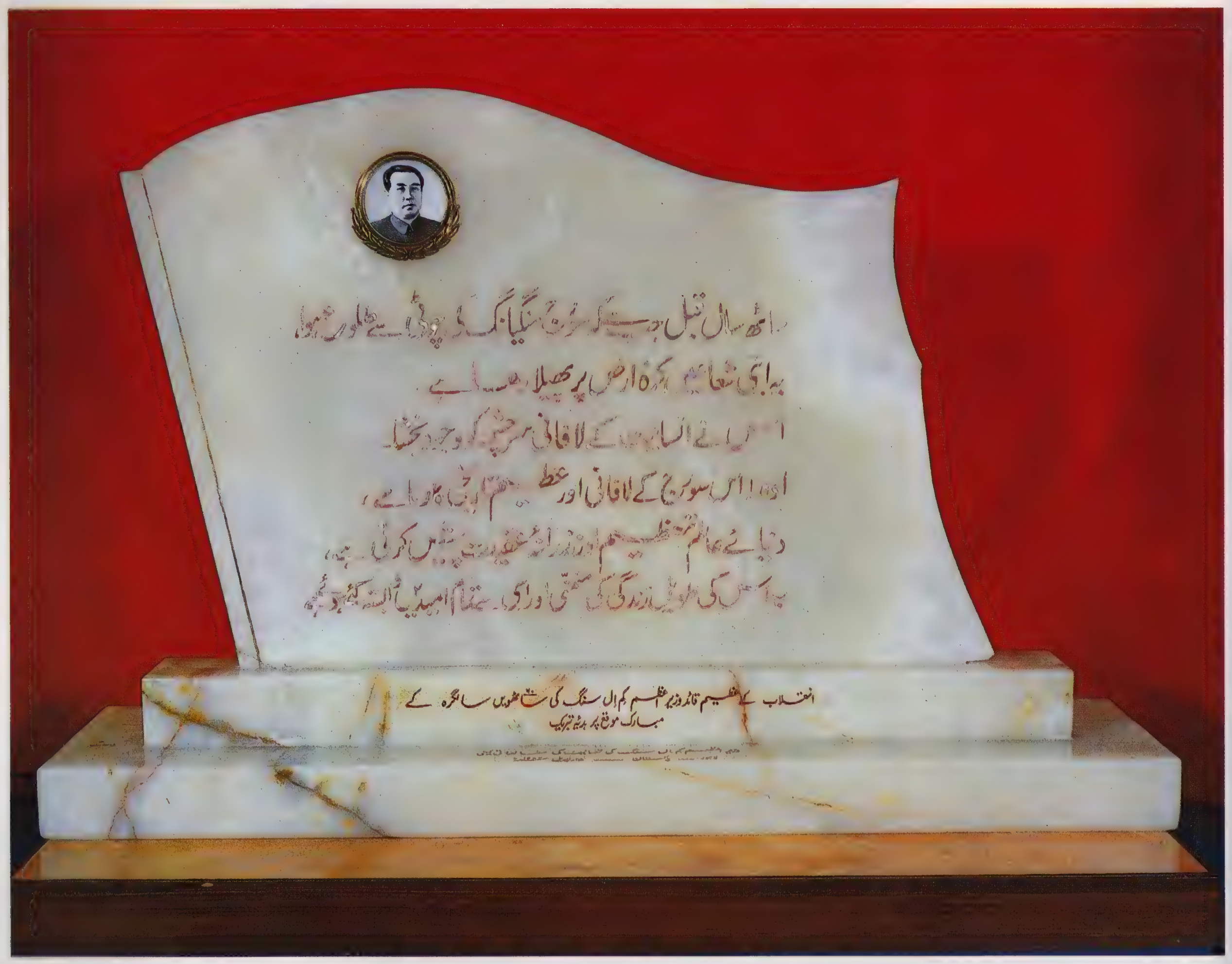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뽈스까 통일로동당과 뽈스까 인민이 올린 《수정꽃병》 (1983. 9. 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영국 뉴애비출판물상사대표단이 올린 조각 《바퀴를 가공하는 사람》(1984. 5. 26)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서부독일 벤즈부속회사 사장이 올린 도자공예 《한쌍의 백마》(1983. 2. 1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파키스탄라호르 김일성동지로작연구회에서 드린
대리석기발에 새긴 축하문 (1972. 4. 15)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싱가포르대동유한공사 경리가 올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 (1980. 4. 15)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또고공화국 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가 드린 둥근상, 의자, 화분대, 소뿔모자(1974. 9. 1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말리공화국 민족해방군사위원회 위원장이며 국가수반 겸 정부총리인 무싸뜨라오레가 올린 나무조각품(1976.5.19)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탄자니아에 있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소조 성원들이 올린 나무조각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을 연구하는 서남아프리카사람》(1981. 2. 1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마다가스까르 따마따브시 혁명적근로자들과 청년회관 건설자일동이 올린 나무조각 《혹소싸움》(1978. 6)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짐바브웨공화국 대통령 카나안 바나나가 드린 조각 《코끼리》(1983. 8. 20)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알제리 알좌자이르도 떼니아구역 행정위원회 서기가 올린 《사하라천연돌꽃》(1982. 2. 1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니까라과 싼디노민족해방전선 전국지도부 성원이 올린 원형다반을 들고 서있는 악어박제품과 나무 재털이, 나무잔(1982. 4. 15)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내각총리 피델 까스뜨로 루쓰가 드린 《벽걸이거울》(1982. 9. 19)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에꽈도르 《볼룬따드》출판사 사장 움베르또 오르띠스 플로레스가 올린 나무조각 《에꽈도르인민의 비참한 생활》(1975. 10. 5)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수리남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올린 나무조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만세!》(1983. 7. 2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올린 탁상용 필기도구일식, 토기단지(1978.9.9)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에꽈도르 과야길종합대학주체사상 연구대표단이 올린 나무조각품 (1985.10.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카나다 5대양상사 부사장이 올린 동조각 《지혜롭고 용감한 소몰이군》(1984. 2. 16)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쟈메이커 킹스톤 쎄인탄드류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올린 《시계가 달린 호랑이그림벽걸이》(1983. 2. 16)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뻬루 싼마르띤 데 보레스종합대학 대표단이 올린 《원형동벽걸이》(1982. 10. 3)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이아나 김일성동지주체사상 연구쎈터와 연구소조에서 올린 나무쪽무이 《세계지도》(1980. 10. 10)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볼리비아공화국 좌익민족혁명전국 정치위원회 성원, 볼리비아공화국 국회하원의원, 국회헌법 및 사법검찰위원회 위원장이 올린 주석공예 《만복의 신》(1983. 9. 8)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국제원자력기구 출판부장부부가 올린 《수지전화탁》(1983. 9. 9)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오스트랄리아 외교부장이 올린 《동술잔》(1975. 7. 10)

행 복 의 꽃

정원에 김일성화 심었네
행복의 꽃 심었네
그 꽃 모든 인민들이 반기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 싣고
그 향기 바람타고 온 세상에 퍼져가네

사람들 주체사상을 반겨 우러르지만
원쑤들은 그 사상 막으려 날뛰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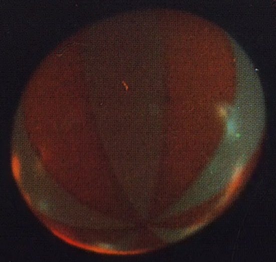
꽃중에도 제일 아름다운 꽃향기
세월이 흐를수록 그 향기 짙어지네

단결하자
전세계혁명가들이여
주체의 꽃향기로 모든 사람 숨쉬게 하자
제국주의원쑤를 쓸어버리자

마다가스까르 교원 보또라바 피델



김일성화, 아름다운 이 꽃은 인도네시아의 한 저명한 식물학자가 연구개발한것을 수카르노대통령이 《김일성화》라고 이름지은 꽃이다.



태양과 향도성

이 세상 얼마나 많으랴
기발을 추켜들고
혁명을 하려는 그런 나라는
얼마나 많으랴 이 세상엔
종속되고 예속되여
억압받고 착취받는 그런 인민은
하지만 그런 나라 그런 인민들은
앞길을 밝혀주는 새별을 맞지 못해
갈길 몰라 헤매이거니

인민들이여 투쟁에 나서라
주체의 해발아래
예속없는 자주의 세계 위하여



열렬하게
결단성있게
용감하게 앞으로
여기에 자유롭고 자주적인민이 있나니
조선의 밤하늘에 찬연한 새별은 빛나
영광스러운 인간해방의 나래를 활짝 펼쳤노라
아— 사랑하는 조국이여
숭엄하고 아름다운 조선이여
위대한 태양은 빛나
그대의 아침은 밝아라!
위대한 향도성이 빛나
그대는 길이 빛나라!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연구소대표단



만 민 의 찬 가

발행소 등 대 사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동 등대사
인쇄소 등대사인쇄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동
인 쇄 1987년 3월 1일
발 행 1987년 4월 10일

값 5 원

